

#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9 vol.335

# 11

유럽 박물관 기행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연출님! 음악은 제건데요...”  
오페라 ‘리콜레토’ 에필로그 1

커비스토리

환상적인 모던 발레  
프렐조카슈 발레단 ‘프레스코화’

프렐조카슈 발레단 ‘프레스코화’



도슨트와 함께하는 2019 블루아트페어

# BLUE ART FAIR

시타딘 해운대 부산 호텔  
18F.19F

citadines  
APART\*HOTEL

Opening Reception

2019.11.28THU

PM6:00 4F 연회장

11.28<sup>THU</sup>  
- 12.01<sup>SUN</sup>

주최  블루호텔아트페어 운영위원회,  부산도슨트협회(비영리법인) 후원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기장비엔날레운영위원회,  대구도슨트협회(비영리법인)



# New Eyes Next Wave

2019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12. 27 (FRI)  
~ 31 (TUE)

## 초청단체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배우창고  
극단 오오씨어터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이팝무용단  
매직큐  
프레스티지쇼  
하이클래식아트컴퍼니





# 오승근

가/을/소/풍

# 콘서트

11.15 (금)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자정좌석 VIP석 40,000원 · R석(1층) 30,000원 · S석(2층) 20,000원 · A석(2층) 10,000원  
인타켓예매 수 안내처 전화예매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관람연령 8세이상  
타켓할인 누림회원 - 초·중·고 - 단체 30%이상(30%), 장애인(50%)

OH SEUNG GEUN CONCERT



뮤지컬 코미디



원작: Dan Goggin

since 1991  
화끈하고 잘노는 수녀들의 유혹!

# 년센스

2019. 12. 7 (토) 14:00 / 1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화공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여 전국이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고자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의 뮤지컬 년센스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는 문화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해운대문화회관 (주)유지컬년센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매 gema 티켓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관람 8세 이상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정형돈/데프콘

# SHOW ME THE HIPHOP

## 쇼미더힙합



2019. 12. 20. FRI 7:30PM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티켓가격 VIP석1만원, R석3만원, B석2층2만원 티켓예매 인터파크,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관람제한 14세중학생이상  
초기예매 누림회원 초·중·고·단체 20%이상 30% / 일반 20%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할인비용 없음 \* 12.11.15까지  
티켓할인 누림회원 초·중·고·단체 20%이상 20%, 장애인 30% → 누림회원카드 학생증 장애인카드 국가유공자카드 확인 후 일부

Guest. 고은/에지



The 71st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문화공감

남상일과 함께하는 國香萬里

# 국향만리

국악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지휘자 홍희철

국악인 남상일



예술감독 김원명



소프라노 김시하



테너 장진규



바이올린 조혜은



트럼펫 최수용



연희단 풍물머당

2019. 11. 19. (화) 8:00 PM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만원 (사전예매 시 30%)

예매 | INTERPARK 1544-1555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문의 | 051)220-5812

주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을숙도문화회관

부산국악오케스트라(BKO)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을숙도문화회관의 '명품콘서트'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58개국 318개 도시 투어!

COOKIN'  
**NANTA**  
부산행



2019년 12월 20일(금)~12월 25일(수)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예매  인터파크 티켓

THE  
**NANTA**

문의 02-721-7644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PMC PRODUCTION





12



20



24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1

2019 November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2019년 11월호 통권 335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황해순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마케팅팀장 서정환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9년 10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08

COLUMN

‘장소’의 재발견

10

SCHEDULE

11월 공연캘린더

12

COVER STORY

프렐조카주 발레단 ‘프레스코화’

16

POEM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④ 새는

18

BACKSTAGE OPERA

“연출님! 음악은 제건데요...”  
오페라 ‘리골레토’ 에필로그 1

20

MUSEUM OF EUROPE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

24

TRAVEL WITH YOU

바다를 이어 추억을 엮는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29

PREVIEW

36

ISSUE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with 임동혁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40

REVIEW

46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62

NEW BOOK

새로 나온 책

63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64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⑨



## ‘장소’의 재발견

춤 비평가, 본지 편집위원 **이상현**

토머스 홉스의 소설 ‘리바이어던’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떤 장소 내에서 생각하지 않기로 불가능하다.”

인간은 장소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존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든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장소가 물체를 한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플라톤, 헬레니즘 사상가들, 신 플라톤주의자들과 데카

르트의 관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소에 의해 한계 지어진 물체는 엄밀한 크기와 형태에 의해 철저히 한정됩니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이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만일 ‘물체’가 무기력한(inert) 자연 물리적 물체가 아니라, 유기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것이라면, 특히 급속히 성장 중인 물체의 경우에 그 물체를 한계 짓는 장소는 물체의 성장이 아무리 미미한 정도라 해도 성장할 때마다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 제기는 이후 칸트, 후설, 화이트헤드, 메를로퐁티에게로 이어지면서 장소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특히 체험된 인간 신체와 관련해 고찰되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은 1988년 대극장 준공을 시작으로 1993년 전관을 개관했고, 2017년 재단법인 출범으로 부산시민회관까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역사, 객석 수, 공간의 크기 등 모든 면에서 부산 공연예술의 중심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은 문화회관이 지역에서 역량 있는 예술가를 수용해 자체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제작극장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문화회관은 부산 공연예술의 기능과 역량이 집중되는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부산 공연예술의 핵심적 장소로서 문화회관이 담고 있는 내용물은 ‘예술-공연예술’입니다. 예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장소 개념에서 말하는 ‘급속히 성장’하고 ‘살아 있는 유기체’ 같은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유기체를 한계 짓는 장소인 문화회관은 그것의 성장이 아무리 미미한 정도라 해도 성장할 때마다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예술의 성장을 예상하고 변화에 대비한다면 더 할 것이 없겠지요.

요즘 문화회관의 변화가 흥미롭습니다. 야외무대가 있던 자리에 지역 예술가를 위한 연습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물리적 확장부터, 음악 중심의 기획을 분산해 무용과 연극의 비중을 높이고, 시즌제를 도입하고 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장소 규격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

의 변화에 맞춰 장소의 질적 변화를 주는 것인데요. 여기에 신진예술가 페스티벌과 같이 예술의 성장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기획까지 더 해 부산 시민과 예술가가 문화회관이라는 장소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술은 태생적으로 민주적입니다. 무슨 말이나면,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정리하기 힘들지만, 기어이 사람들이 감동하고 좋아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예술이 한때 이 땅의 역사와 사회-정치적 문제에 한계 지워져 기묘한 모양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군사문화의 폐해가 예술계에도 어김없이 파고들었고, 억압적 사회 분위기는 예술을 누르고 오락과 무관심의 영역으로 몰아갔습니다. 한참 동안 예술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지요. 국가라는 ‘장소’가 예술이라는 유기체를 ‘장소’의 한계에 옥여놓고 한계를 벗어나 변화하려는 시도를 누르고 잘라 버린 것입니다. ‘장소’의 한계가 변화하는 유기체를 박제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소’가 예술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예술을 담은 ‘장소’가 변화를 거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의 변화가 더욱더 반갑고, 기대됩니다.

‘장소’와 ‘공간’은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장소’를 절대적이라 여겼던 ‘시간과 공간’에 종속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장소’는 단순히 공간의 변용으로 간주하였고, 19세기에 이르면 공간조차 시간이 감각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아 공간을 시간에 종속시킵니다. 그러니 공간에 종속된 ‘장소’ 개념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정도

가 된 것이죠. 근대 후기 탈근대사상가들에 이르러서야 ‘장소’는 비로소 공간이나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구체적이고 다중적이며 경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공간’이 물리적이고 공공적이라면 ‘장소’는 다양한 개인의 체험과 기억이 녹아있는 열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은 지금과 같은 변화를 지속하면서 끊임없이 재발견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 예술의 성장과 변화를 담아낼 때마다 문화회관의 존재 의미는 쌓이고, 그것을 예비하고 예민하게 수용하기까지 한다면 문화회관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변화하는 ‘장소’에는 시민 개개인의 문화적 체험과 기억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장소’는 내용을 억압하고 고사시킵니다. 그 결과 장소의 역동성이 사라진 단조로운 사업 공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문화회관의 공연 시즌도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문화회관은 변화를 느끼기 힘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장소’에서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양한 ‘장소’로 거듭날 문화회관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반갑고 설레는 일입니다.



# 11

## 2019 NOVEMBER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 부산문화회관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첼**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 부산시민회관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전** 전시실



#####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 SUN

### MON

### TUE

전시실

##### 부산문화회관

**제39회 부산미술제**  
10월 28일(월)-11월 2일(토)  
(사)부산미술협회 632-2400

**2019 한중 국제교류전**  
11월 9일(토)-11월 15일(금)  
(사)한국서도예술협회 441-7081

**2019 제27회 부산한국화전**  
**New Wave of Busan Korean Painting Exhibition**  
11월 17일(일)-11월 20일(수)  
김정우 010-2297-8024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상전**  
11월 22일(목)-25일(월)(1부)  
11월 27일(수)-30일(토)(2부)  
(사)한국현대미술협회 644-0005

전시실

##### 부산시민회관

**제39회 부산미술제**  
10월 28일(월)-11월 2일(토) 1, 2층 전시실  
(사)부산미술협회 632-2400

**2019년 포토클럽 빛그림자 제14회 사진전시회**  
11월 4일(월)-11월 10일(일) 1, 2층 전시실  
포토클럽 빛그림자 010-2938-4050

**토백회전**  
11월 11일(월)-11월 17일(일) 1층 전시실  
토백회 010-9858-9493

### 3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T-Band 블루 '열사가' 17:00  
**중** 무료/T-Band 블루(010-4591-0214)

한얼악회 제13회 정기연주회 '휘이 휘이' 18:00  
**소** 무료/한얼악회(462-0173)

### 4

### 5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 19:30  
**중** 무료/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320-8331)

부산이용사회 경기대회 및 각구회원 노래자랑 09:30  
**소** 부산이용사회협의회(817-5004)

### 10

턴 투워드 부산 참정용사 후원 유엔국제평화  
기원 음악회 '영웅 환타지아' 19:00  
**대** 5만원·3만원·2만원/유엔PEC모임(611-100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NT-Live**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14:00, 18: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11

'턴 투워드 부산' 2019 평화물결 19:30  
**대** 무료/부산일보사(461-4437)

춤과 사람 기획공연 '화류산방(花流山房)' 19:30  
**중** 초대/춤과 사람(010-8912-4881)

### 12

제12회 동서커피클래식 19:00  
**대** 크레디아프로젝트(02-741-1521)

BCMS 초청콘서트 '가을밤의 세레나데' 19:30  
**중** 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

### 17

한화 팝&클래식 여행·뮤지컬 인 라이프 17:00  
**대** 초대/한화그룹(02-566-8373)

연(緣) 무용단 정기공연 '무인향(舞人香)' 17:00  
**중** 초대/연무용단(010-6328-6362)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1:00  
**소** 무료/광복회 부산광역시지부(256-5815)

### 18

제13회 부산문화예술큰잔치 14:00  
**대** 무료/부산광역시 문화원연합회(554-0159)

2019 부산불교합창제 19:00  
**중** 초대/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867-0501)

### 19

**◆부산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연주회**  
**'세계를 품다'** 19:3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6)

고신대학교 음악과 합창 정기연주회 19:30  
**중** 고신대학교(010-8425-3881)

최지은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첼** 초대/최지은(010-2333-2544)

제5회 장애인음악회 18:00  
**소** 무료/부산데프자이언츠아구단(010-4220-9450)

### 24

2019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작품발표회 19:30  
**대** 초대/부산대학교(510-1740)

사제동행 프로젝트 2 '춤-날아오르다' 17:00  
**중** 초대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체육무용과(850-3261)

### 25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한-아세안  
세계 정상회의 축하공연' 19:30  
**대** 무료/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0)

### 26

제2회 천명예술단 정기공연 19:00  
**소** 무료/(사)한국종합예술교육진흥원(010-3307-5325)



WED	THU	FRI	SAT
<p><b>제39회 동사회 사진전</b> 11월 11일(월)-11월 17일(일) 2층 전시실 동사회 010-4715-6065</p> <p><b>부산대학교 조형학과 졸업전시회</b> 11월 18일(월)-11월 25일(일) 1, 2층 전시실 부산대학교 조형학과 010-6861-1301</p> <p><b>2019 포토클럽 남광회 회원전</b> 11월 26일(화)-12월 1일(일) 2층 전시실 포토클럽 남광회 010-4790-9988</p>	<p><b>한국수석부산지역전시회</b> 11월 27일(수)-12월 1일(일) 1층 전시실 한국수석문화지역회 010-3883-0080</p>	<p><b>1</b></p> <p>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 19:30 <b>대</b> 초대/KNN(850-9568)</p> <p>부산와인스쿨 나눔행복합창단 제2회 정기 연주회 19:30 <b>중</b> 초대/나눔행복합창단(525-9100)</p> <p>희망울림발표회 15:00 <b>소</b> 무료/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640-0234)</p>	<p><b>2</b></p> <p>창단22주년 해운대소리합창단 제11회 정기 연주회 16:00 <b>중</b> 무료/해운대소리합창단(010-2546-0830)</p> <p>박소현 해설이 있는 바이올린, 비올라 독주회 ‘알고 나면 쓸데 많은 신나는 클래식’ 17:00 <b>첼</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b>6</b></p> <p><b>◆(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프레스코화 발레단 ‘프레스코화’ 19:30</b> <b>대</b> 8만원·6만원·4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9회 청솔합창단 정기연주회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19:30 <b>중</b> 무료/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010-8468-7883)</p> <p>Page Design과 함께하는 김정화 피아노 리사이틀 ‘Begin Again’ 19:30 <b>첼</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명작뮤지컬 ‘장학신은 고양이’ 10:00, 11:30 <b>소</b> 전석 1만5천원/극단 남비곰비(02-882-9001)</p>	<p><b>7</b></p> <p>동성 창립 60주년 기념 ‘동성 페스타’ 19:30 <b>대</b> 초대/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p> <p>루보체 레이디스 싱어즈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b>중</b> 초대/루보체 레이디스 싱어즈(010-3837-9567)</p> <p>2019 부산음악축제 III ‘실내악상불의 밤’ 19:30 <b>첼</b>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b>8</b></p> <p>2019 부산음악축제 IV_오페라 갈라콘서트 ‘사랑의 묘약’ 19:30 <b>대</b> 전석 1만원/(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연세대학교 심포닉 윈드오케스트라 부산 초청 공연 19:30 <b>중</b> 5만5천원·3만3천원·2만2천원 윤예술기획(010-9025-2012)</p> <p>PITESTI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9:00 <b>소</b> 무료/파홀로예술기획(010-4878-6369)</p>	<p><b>9</b></p> <p>제12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14:00 <b>대</b> 무료/(사)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513-4306)</p> <p>부산교사합창단 제24회 정기연주회 17:00 <b>중</b> 무료/부산교사합창단(010-3170-5817)</p> <p>그레이스 챔버 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Sweet Sorrow’ 19:00 <b>첼</b> 초대/그레이스 챔버 오케스트라(010-9321-2867)</p> <p>부산재능시낭송협회 제22회 정기공연 19:00 <b>소</b> 부산재능시낭송협회(010-3864-5807)</p>
<p><b>13</b></p> <p>대한민국 1세대 피아니스트 한동일 초청 힐링 콘서트 ‘귀향’ 19:30 <b>대</b> 3만원·2만원·1만원/부산문화(1600-1803)</p> <p>독일가곡연구회 제55회 정기연주회 19:30 <b>중</b> 2만원·1만원/독일가곡연구회(010-9114-1733)</p> <p>얼렁뚱땅 신데렐라 찾기 10:30, 11:40, 13:00 <b>소</b> 초대/예술공장승승(513-3054)</p>	<p><b>14</b></p> <p><b>◆(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장한나&amp;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pf. 임동혁) 19:30</b> <b>대</b> 12만원·9만원·6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19 효원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푸른 바다의 기억’ 19:30 <b>중</b> 무료/효원국악관현악단(010-7149-9499)</p> <p>얼렁뚱땅 신데렐라 찾기 10:30, 11:40, 13:00 <b>소</b> 초대/예술공장승승(513-3054)</p>	<p><b>15</b></p> <p>2019 여성문화회관 ‘예술의 밤’ 19:30 <b>대</b> 무료/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320-8341)</p> <p>아첸투스 챔버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b>첼</b> 2만원·1만원 아첸투스 챔버 오케스트라(010-8559-0415)</p>	<p><b>16</b></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3회 부산청소년합창제’ 17:00 <b>대</b> 무료/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7)</p> <p><b>◆(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시아와 친구들: 트러저헌터즈’ 15:00</b> <b>중</b>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7회 소프라노 신정순, 버리톤 곽봉수 부부음악회 18:00 <b>첼</b> 전석 2만원/M&amp;M 성악연구회(010-4434-6605)</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제6회 부산직장인밴드경연대회’ 15:00 <b>소</b>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20</b></p> <p>BBS 마인드 힐링콘서트 ‘가무 천년 대축제’ 19:00 <b>대</b> 초대/부산불교방송(797-5114)</p> <p><b>◆2019 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테콘서트 시즌 5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Best of Best’ 11:00</b> <b>중</b>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테너 도각 독창회 19:30 <b>첼</b> 한·중음악교류협회(010-4136-1410)</p> <p>이바디예술단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打’ 19:00 <b>소</b> 무료/이바디예술단(634-6183)</p>	<p><b>21</b></p> <p>KNN과 강림문화재단이 함께하는 2019년 제6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여행 19:30 <b>대</b> 초대/KNN(850-9568), 강림문화재단(637-5678)</p> <p>한국창작합창 21 2019년 제13회 정기 작품 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 IX’ 19:30 <b>중</b> 초대/총무이사 권태우(010-7600-4514)</p> <p>2019 생명나눔의 날 ‘제14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 19:00 <b>소</b> 무료/(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853-0429)</p>	<p><b>22</b></p> <p><b>◆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6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X ‘아름, 열, 열하나’ 19:30</b> <b>대</b>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b>23</b></p> <p>2019년 제5회 부산음악축제 II 18:00 <b>소</b> 무료/부산국악협회(644-5211)</p>
<p><b>27</b></p> <p>오페라단 나눔 오페라 ‘라보엠’ 19:30 <b>중</b> 12만원·7만원·5만원·3만원 오페라단 나눔(611-0132)</p> <p>제9회 풍물예술봉사단 정기공연 19:30 <b>소</b> 무료/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320-8341)</p>	<p><b>28</b></p> <p><b>◆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 ‘南風-South Breeze’ 19:30</b> <b>대</b> 전석 1만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에그리나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b>중</b> 무료/에그리나합창단(010-3841-7402)</p>	<p><b>29</b></p> <p><b>◆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 ‘南風-South Breeze’ 19:30</b> <b>대</b> 전석 1만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2019 강태홍의 소리 19:30 <b>중</b> 무료/(사)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010-3130-1353)</p> <p><b>◆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실내악 공장’ 19:30</b> <b>첼</b> 전석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회 ‘포레스트 검프’ 14:00 <b>소</b> 무료/(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b>30</b></p> <p>어울림국악연구회 창립 33주년 제25회 정기연주회 18:00 <b>중</b> 무료/어울림국악연구회(467-7975, 442-2688)</p> <p>김미성 귀곡 피아노 독주회 17:00 <b>첼</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커버스토리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환상적인 모던 발레

## 프렐조카쥬 발레단 '프레스코화'

11.6<sup>수</sup> /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 할인정보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 문화예술인패스, 문화누리카드, 학생할인 20%
- 복지할인 50%

※ 공연당일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미지참시 차액 지불

클래식 발레의 우아함과 현대무용의 파격이 조화를 이룬 작품들로 프랑스 무용을 대표하는 안무가 앙젤랭 프렐조카쥬(Angelin Preljocaj). 그가 이끄는 프렐조카쥬 발레단(Ballet Preljocaj)이 최신작 '프레스코화(La Fresque)'로 부산관광객과 만난다.

클래식 발레 전공 후 현대무용가로 전향하여 1984년 안무가로 데뷔한 프렐조카쥬는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인 움직임, 독특한 미학과 파격적인 해석, 뛰어난 안무 테크닉 등으로 데뷔하자마자 단번에 무용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Benois de la Danse'와 'Bessie Award'를 비롯하여 수많은 안무상을 수상했으며,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Officier des Arts et des Lettres 을 수훈하는 등 명실공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안무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선보일 모던발레 '프레스코화'는 중국의 설화집 <요재지이(聊齋志異)>에 수록된 'The Painting on the Wall' 이야기를 모티브로 창의적이고 간결한 안무에 아름다운 조명과 의상을 더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 프렐조카주 특유의 관능적인 안무로 탄생한 중국 기담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옛날 옛적 중국에 주효렴과 맹룡담이라는 두 여행자가 있었다. 어느날 강한 비바람을 만난 두 사람은 근처 오래된 절을 찾아가다. 절의 노승 덕분에 두 사람은 비바람을 피하게 된다. 절의 한쪽 벽에는 여인들을 그린 커다란 벽화가 있었는데, 주효렴은 그림 속 미소가 아름다운 긴 머리 여인에게 매혹된다. 잠시 후 주효렴은 자신이 그림 속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긴 머리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뒤 부부의 연을 맺는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병사들이 찾아와 ‘인간이 들어왔느냐’며 집을 뒤진다. 그는 긴 머리 여인의 도움으로 침대 밑에 숨는다. 한편 맹룡담은 친구가 없어진 것을 알고 절을 지키는 노승에게 주효렴이 어디갔는지 묻는다. 그러자 노승이 그림을 두들기며 ‘주 선생 나오세요. 친구가 기다립니다’라고 말한다. 이때 주효렴이 벽 속에서 겁에 질려 나온다. 무슨 일인지 묻는 맹룡담에게 주효렴은 어안이 병병한 얼굴로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 두 사람은 벽화를 바라본다. 긴 머리의 여인은 어느새 결혼한 여인처럼 비녀를 꽂고 있는데, 아까와 달리 복잡한 미소를 띄고 있다. 비바람이 멈췄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시 길을 떠난다.”

이것은 17세기 중국에서 나온 기담집 <요재지이(聊齋志異)>에 나오는 ‘벽화’ 이야기다. 포송령(蒲松齡)이 민간에서 전승되던 기이한 이야기를 토대로 쓴 <요재지이>는 재미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돼 있다. ‘천녀유혼’을 비롯해 ‘화피’, ‘화벽’, ‘협녀’ 등 여러 편의 중국 영화가 바로 <요재지이>에 나오는 이야기를 원작으로 했다.

<요재지이>의 ‘벽화’ 이야기를 프랑스 현대무용계의 간판 안무가가 춤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11월 서

울, 부산, 대전 무대에 오르는 프렐조카주 발레단의 ‘프레스코화(La Fresque)’가 바로 ‘벽화’를 모티브로 만든 것이다.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안무로 유명한 거장 앙줄랭 프렐조카주가 안무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프렐조카주는 1957년 파리 근교에서 정치적 이유로 알바니아에서 프랑스로 망명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1984년 안무가로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50편이 넘는 수작을 만들어냈다. 특히 작품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무대, 격렬하고 관능적인 춤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무용계 최고 영예 중 하나인 ‘브누아 드 라 당스’와 ‘베시 어워드’를 비롯한 수많은 안무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가 무용에 입문한 계기는 11살 때 우연히 본 사진 한 장 때문이다. 같은 학교 여자친구에게 빌린 책에 끼워져 있던 사진의 주인공은 당시 최고 발레리노 루돌프 누레예프. 누레예프의 빛나는 육체에 매료된 그는 “무엇이 이토록 인간의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당시 배우던 유도를 그만두고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다. 다만 몇 년 뒤 정형화된 발레에 답답함을 느낀 그는 현대무용으로 진로를 바꿔 카렌 바에너에게 배웠다. 이어 미국 유학을 떠나 머스 커닝햄 등을 사사하고 돌아온 뒤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에서 공부했다. 1982년 도미니크 바구에 무용단에 들어간 그는 1984년 몽펠리에에 댄스 페스티벌에서 ‘식민지





시대의 모험'을 선보이며 안무가로 데뷔했다.

1984년 프렐조카주 컴퍼니(1996년 프렐조카주 발레단으로 개칭)을 설립한 그는 이듬해 바놀레국제안무대회에서 '암시장'으로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프랑스 '누벨 당스'(새로운 춤이란 뜻)의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1980년대 프랑스는 국가 주도 지원정책과 함께 재능있는 젊은 안무가들의 잇단 등장으로 현대무용 강국이 됐다. 당시 미국 포스트모던 댄스 및 독일의 탄츠 테아터와 구별해 프랑스 현대무용을 누벨 당스로 부른다. 프렐조카주는 누벨 당스 안무가 가운데 클래식발레의 내러티브성과 현대무용의 추상성을 오가며 폭넓은 스펙트럼의 안무를 보여준다.

1990년 리옹오페라발레를 위해 안무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발레와 현대무용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의 장기를 잘 보여준다. 그는 낭만적이고 격정적인 셰익스피어 원작의 배경을 음울한 전체주의 계급사회로 바꿔놓았다. 이 작품은 초연 직후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그에게 세계적인 명

성을 안겨줬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해 그의 고전 재해석은 급진적이면서도 강렬하다. 국내에서 2차례나 공연된 '스노우 화이트(백설공주)'만 보더라도 동화의 천진난만한 판타지를 빼고 에로틱하면서도 잔혹한 어른용 작품으로 만들었다. 내러티브 있는 작품으로 워낙 높은 평가를 받다보니 그의 추상적인 작품은 주목을 덜 받는 편이다. 하지만 독일 전자음악의 대가 칼하인츠 슈톡하우젠의 음악으로 만든 '헬리콥터' 등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찬 수작이 적지 않다.

그는 1996년 프랑스 남부에 있는 엑상프로방스 국립안무센터(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CCN)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단체를 이끌고 있다. 엑상프로방스는 2006년 프렐조카주 발레단을 위한 창작공간 겸 공연장 '더 파빌론 누아르(The Pavillon Noir)'를 만드는 등 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CCN은 한국으로 치면 '시립무용단'에 가까운 곳으로 정부, 도, 시의 지원을 받는다. 1980년대 들어 '문화의 탈중앙집권화'를 위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재능있는 안무가들이 파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활동



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 19개의 CCN이 존재한다. 각각 예술감독을 임명하며, 상주안무가를 겸하고 있는 예술감독은 개인 무용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CCN의 예술감독들이 세대교체 됐지만 프렐조카주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이를 먹어도 안무가로서 날카로운 감각이 무뎠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1991년부터 시작한 영상 작업은 그의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무용계에서도 '댄스 필름' 열풍이 불고 있지만 그는 일찌감치 영상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댄스 필름을 만들어왔다. 또 극영화와 광고 감독으로도 종종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 2016년 영화감독인 아내 발레리 필러와 공동감독한 '폴리나'로 베니스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되기도 했다.

프렐조카주는 1996년 '퍼레이드', '결혼', '장미의 정'을 가지고 처음 내한한 이후 '봄의 제전', '헬리콥터'(2003년), '그리고, 천년의 평화'(2012년), '스노우 화이트'(2014·2016년), '갈라 프렐조카주'(2016년)를 한국에 선보였다. 그리고 이들 작품은 매년 화제를 모으며 관객을 불러모았다.

그가 이번에 한국에서 선보이는 '프레스코화'는 2016년 초 연된 작품이다. 프랑스 파리 테아트르드라빌(시립극장)이 젊은 관객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한 데서 시작됐다. 다만 '프레스코화'는 젊은 관객을 위한 작품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프렐조카주는 작품의 아이디어를 위해 세계 각국의 동화를 읽던 중 <요재지이>의 '벽화' 이야기에 매료됐다.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흐릿하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실제 삶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현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두 세계를 쉽게 오간다. 젊은이들에게 인기있는 포켓몬고 게임이 대표적이다. 포켓몬고는 현실 속 모바일에 출현하는 가상의 포켓몬을 포획하는 게임이다. 다만 '프레스코화'는 프렐조카주가 '벽화' 이야기 가운데 뼈대만 가져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그래서 원작의 중국 배경은 이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시공간을 분명히 알기 어려운 가운데 몽롱하고 이국적인 정취가 떠다닌다.

프렐조카주의 춤은 전체적으로 꿈같은 낭만을 보여주면서도 낯선 세계에 대한 불안이 교차한다. 작품에 출연하는 10명의 무용수는 프렐조카주 특유의 관능적인 안무를 매끄럽게 보여준다. 공연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두 여행자의 꿈같은 움직임, 흰 옷을 입은 긴 머리 여인의 고풍적인 춤, 두 남녀의 에로틱한 2인무 등 지루할 틈이 없다. 원작의 주인공이 긴 머리의 여인에게 매혹되는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머리카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공연이 시작되면 긴 머리카락이 공중에 떠다니는 듯한 이미지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림 속 여인들로 나오는 다섯 명의 여성 무용수들은 긴 머리카락을 전후좌우로 흔들며 매우 인상적인 군무를 선보인다.

프렐조카주의 안무는 조명, 무대디자인, 음악, 의상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덕분에 한층 빛을 받는다. 시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는 바로 팀워크의 산물이다. 특히 프랑스의 일렉트로 팝 듀오 'AIR'의 멤버 니콜라 고맹의 미니멀한 음악은 안무와 매우 치밀하게 어울어진다.





## 당신의 마음 감기지 않도록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동길산**

✉ [dgs1116@hanmail.net](mailto:dgs1116@hanmail.net)

새는  
 날면서 더 많이 울까  
 앉아서 더 많이 울까  
 그런 생각이 든 건  
 새가 이미 떠난 뒤  
 새처럼  
 당신이 떠난 뒤

동길산 詩 '새는'



66

당신의 눈이 감기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이 감기지 않도록  
당신과 오래오래 맞추는 눈빛

99

새벽. 창호지에 빛이 스며든다. 밝기 직전의 새벽빛이 스며든 창호지는 은은하다. 한지를 바른 창호지 창문은 직설적인 유리창에 비해 언제라도 은은하지만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이맘 때가 하루 중 가장 은은하다. 덩달아 마음도 은은해진다.

새소리. 빛과 함께 새소리가 창호지에 스민다. 새소리 역시 들릴 듯 말 듯 은은하다. 아마도 하루 중 가장 은은하리라. 창문을 열면 새가 우는 바깥이 보이겠지만 참는다. 소리에 민감한 새가 창문 여는 소리를 듣고 날아갈까 싶어서다. 새인들 그게 좋을까.

궁금은 하다. 지금 저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외로운 소리일까, 다정한 소리일까. 외로운 소리는 외로워서 은은하게 들리고 다정한 소리는 다정해서 은은하게 들린다. 어떤 소리든 새는 기력을 다해서 운다. 목청에서 꼬리까지 온몸을 떨면서 운다.

새소리는 나를 미안하게 한다. 새는 목청에서 꼬리까지 떨면서 우는데 나는 제대로 들었던가. 우는 새와 눈빛이라도 제대로 맞추었던가. 날이 밝는다. 새소리 역시 밝아진다. 창호지 창문 틈새로 바깥을 내다본다. 소리는 들려도 새는 보이지 않는다.

새는 어디서 올까. 어떻게 올까. 보일 때는 보이지 않더니 보이지 않으니 보려고 한다. 소리마저 똑 그친다. 창문 열고서 감나무 가지를 기웃거리고 감나무 너머 흰하게 밝은 하늘을 기웃거린다. 새는 얼마나 야속했을까. 얼마나 낙담했을까. 오, 새여! 오, 나여!

당신도 그러리라. 보이면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으면 죽도록 보고 싶을 당신. 당신을 제대로 보려고, 제대로 들으려고 당신 가까이 다가간다. 당신의 눈이 감기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이 감기지 않도록 오래오래 눈빛을 맞춘다. 새소리가 다시 들린다.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 “연출님! 음악은 제건데요...” 오페라 ‘리콜레토’ 에필로그 1

이의주 오페라 연출가

부산문화회관이 재단으로 출범한지 3년만인 2019년 10월, 최초로 제작한 오페라는 이탈리아가 낳은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 불후의 명작 ‘리콜레토’이다. 고성현, 강혜정, 이재욱, 김요한, 김지호, 박정민, 김종표, 박현진 등 그야말로 어벤져스급 캐스팅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강석희 지휘, 그리고 각 분야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함께 하면서 소위, 대박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 모든 것은 제작진과 연주자, 그리고 스태프들과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궈낸 부산의 오페라 씨앗 심기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최초로 제작한 오페라 ‘리콜레토’



공연이 끝난 후 나간 로비에는 ‘리콜레토’의 감동을 더 느끼고자 극장을 떠나지 않고 아리아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을 흥얼거리며 프로그램 북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는 이, 배너 앞에서 캐스트들에게 사진을 권하는 이, 그 순서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이, 그 속에 매진된 프로그램 북을 구해 달라는 이,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부산문화회관 직원들과 방금 전 커튼콜에 나왔던 나를 기억해주는 수많은 관객들로 가득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나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오페라 메카로 자리 잡을 것 같은 예감과 확신을 품게 되었다. 음악을 통해 모두가 감동받고 모두가 행복해 하는 순간이었다. 감개무량하다. 공연 트레일러를 만드는 초기 작업부터 지금 회상하는 로비 광경까지 아주 잊지 못할 작업이었고 내게 주어진 연출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공연이었다.

나는 사실 이 공연이 당연히 잘 될 것이라 생각했다. 공연을 구성하는 인적 재료가 좋고, 특히 부산문화회관이 내게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 그리고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작품은 흔히 많은 제작비로 해결될 거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의 마음이 좋은 작품을 만든다. 그 진심과 열정을 알아주고 함께 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온다. 물론 공간에서 인심이 나니까 많은 제작비도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공연을 하면서 부산문화회관 측에서 내가 요청하는 많은 것들을 최대한 수용해 주고, 특히 소극장인 사랑채 극장을 통째로 3주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 점이 연습을 집중도 있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점은 연기와 동선이 많은 합창단들과 소통을 하는데 지대한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부산문화회관에 새로운 공간인 연습동이 생기면 더 더욱 효율적인 준비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페라 ‘리콜레토’는 일반적으로 혼성 합창이 출연하는 오페라와는 다르게 남성 합창만 등장한다. 여성의 음성은 오직 주역, 조역 가수 외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 남성 합창이 참 멋있고 매력 있다. 특히 3막에 여자 주인공 질다가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고 희생을 선택하



여 스파라푸칠레의 칼에 죽는 순간 부르는, 마치 바람소리 같으며 떠도는 영혼이 부르는 것 같은 가사 없이 “우~~” 하며 부르는 이 소리는 베르디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서 이번 공연에 어떻게 연출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1층 플랫폼 무대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2층에는 마치 저승사자인 듯 무용 퍼포먼스를 하며 여러 가지 상징과 복선을 표현하고, 2층 무대 아래 다리 밑에서는 벽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조명과 실루엣으로 촛불을 든 합창이 마치 도깨비불같이 보이는 가운데 소리를 내며 영혼들이 떠나는 듯한 장면으로 클라이맥스를 연출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워낙 섬세한 표현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자칫 음악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합창단이 부르는 공간에 지휘자를 볼 수 있는 여러 대의 모니터를 설치하여 연기를 하면서 볼 수 있게 조치를 하였다.

무대 리허설을 세 번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리허설에서 지휘자 강석희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 부분에 만족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합창단에게 요청한 퍼포먼스가 벽 가까이 붙어 있어야 그 효과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반투명 재질의 벽 밖으로 지휘자가 보이지는 않고 모니터를 보려면 각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오케스트라 사운드 가운데 모니터를 보고 지휘자와 컨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무대 밖에서 합창단이 지휘자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부르게 되기에 지휘자와 컨택이 어긋날 가능성이 적는데 내가 시도하는 방식은 거의 세계 최초이다 보니 고립된 공간 안에서 경험이 많지 않지만 열정과 패기로 이루어진 젊은 대학생 합창단은 이 부분에서 자신들의 역량은 고사하고 전체 음악에서 옥에 티가 될 수도 있기에 지휘자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사실 이런 경우 지휘자와 연출자의 충돌과 갈등이 폭발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중요한 것, 즉 지휘는 음악, 연출은 그림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묵묵하게 지휘자는 연출인 나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주고 내가 원하는 그림들에 대한 존중을 해 주었다.

물론 나 역시 1막 첫 부분에 나오는 반다 문제를 지휘자를 위해 무대 2층에 배치해 지휘자의 음악에 도움이 되게 만드는 등 서로의 케미와 콜라보레이션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였다. 참으로 분위기가 좋은 프로덕션이었다.

내 생각에는 마지막 세 번째 리허설이 남아 있었고, 반복된 연습을 통해 분명히 해낼 것이라 자신하였다. 그리고 도깨비 불 장면을 너무나 연출해보고 싶었던 나의 의지가 무척 강했다. 그림 상으로는 너무나 멋졌기에 더 더욱 그랬다. 그렇지만 세 번째 리허설을 한 후에는 바로 공연이기에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끝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미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기에 나는 고민이 살짝 들었다. 결국 세 번째 리허설에 도전했다.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연출을 포기했지만 지휘자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아쉬움을 남긴 채 마치게 되었다. 리허설을 마치고 지휘자와 식사를 하러 가는 극장 앞 내리막 횡단보도 앞에서 강석희 선생님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어떻게 하죠? 합창 마지막 부분을 요... 연출님! 음악은 제 건데요...”

공연기간 태풍도 물러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우리 공연의 성공의 징조라고 여기고 있었던 나에게 지휘자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폭풍우처럼 내 머리를 때렸다. 오페라는 음악이 최우선이고, 나의 연출은 음악을 기반으로 만들어 낸다고 자부하였던 이의주가 이렇게 음악에 대한 존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욕심이 만일 미장센에만 집중하고 그 본질인 음악에 침해를 했다면 이전에 내가 음악이 중요하다고 했던 나의 말들은 자기기만인 것이다. 나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며 의견을 준 지휘자의 그 말에 난 한 동안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장면을 위해 음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는 결론을 짓고 곧바로 무대감독에게 공연 때 원편 무대 넓은 공간에 합창이 부를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합창이 빠진 그 공간은 조명으로 다시금 재창조를 했고, 성공적인 공연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함께 하는 작품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만들어 가는 무대가, 더 나아가 그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 MUSEUM OF EUROPE

유럽 박물관 기행

유럽으로 열린 창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

글·사진 김성민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 한 남자의 야망이 만들어낸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엘리트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고 한다. 장구한 역사의 흐름을 단편적으로 정의내릴 수 없지만 역사를 살펴보면(특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작할 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큰 결정이 내려질 때가 많은 것 같다. 오늘 소개하는 러시아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도 바로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다. 러시아 북서쪽 발트 해로 빠져나가는 네바 강 하구에 위치한 이 지역은 늪지대이고 봄에는 항상 홍수가 나서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서유럽의 문화에 매혹된 표트르 대제(1672~1725)는 이곳을 유럽과 교류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로 결정하고 1703년부터 신도시 건설 작업에 돌입한다. 어린 시절부터 독일 상인들과 교류하며



서양문명에 관심을 가졌던 표트르는 29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독일, 네덜란드, 영국을 다니며 직접 선진문명을 익혔다고 한다. 도시의 위치는 유럽과 가까운 항구도시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적국이었던 스웨덴과 너무 가까운 국경선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반이 무르고 습한 곳이었으니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표트르 대제는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인다. 자신이 직접 방문했

1 '성 베드로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2,3 에르미타주 박물관





1

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모델로 하여 인공으로 운하를 만들었고 스웨덴의 침략에 대비하여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를 건설한다. 1712년에는 아예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성 베드로의 도시'라는 뜻으로 표트르 대제 역시 베드로라는 뜻이기에 황제의 생각이 반영된 이름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 정부는 독일에 대한 반감으로 뜻을 같지만 러시아식 발음으로 이 도시의 이름을 '페트로그라드'로 개칭했고, 1924년 소련의 지도자 레닌이 사망하자 그의 이름을 본떠 '레닌의 도시'라는 뜻의 '레닌그라드'로 개칭했다. 이후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원래 이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여름에 방문하면 좋은데 6월 중순부터 7월까지의 백야(白夜) 체



3

유럽 박물관 기행

힘이 가능하고 관련된 볼꽃축제 등 행사도 다양한 편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  
앙리 마티스의 '춤'

네바 강가에 위치한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예카테리나 여제(1729~1796)가 예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던 1764년을 설립연도로 본다. 당시 프랑스의 계몽주의에 깊게 빠져있던 여제는 겨울궁전 옆에 자신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작은 궁전을 만들었고 프랑스어로 은둔지를 뜻하는 '에르미타주(Hermitage)'라 칭했다. 이후 박물관은 계속 확장되어 근처의 다른 궁전들과 연결되었고 지금은 총 다섯 개의 건물에 동양과 서양, 러시아 예술품 등 총 8개의 테마로 나뉘져 있다. 박물관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인데 소장하고 있는 작품 수는 총 2,938,638점, 약 300만점으로 추산하며 모든 작품을 감상하면 총 27km를 걷게 된다고 한다.

미술작품으로는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를 시작으로 바로크 시대 프랑스 화가였던 푸생, 플랑드르의 대표화가 렘브란트 등 다양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모네, 세잔, 고갱과 같은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의 작품들이 많은데 이것은 러시아 최대 직물사업가이자 개인미술 후원가였던 세르게이 슈킨(sergei shchukin 1854~1936)의 역할이 컸다.(애석하게도 자발적

기증이 아닌 러시아 혁명으로 인한 강제압수였다.) 특히 슈킨은 20세기 초, 문화예술의 중심이었던 프랑스에서 형태와 색채의 치열한 공방 가운데 라이벌로 성장했었던 피카소와 마티스를 열정적으로 후원했는데 오늘 필자가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그 가운데 매우 유명한 앙리 마티스의 '춤'이라는 작품이다.

1800년대 사진기의 등장은 사실의 재현을 추구했던 회화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예술적으로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 시작을 알렸다면 이후 고흐, 고갱, 세잔 등이 각자의 방식대로 회화사를 이끌어갔다. 1905년 가을 살롱전에서 한 무리의 젊은 화가들은 기존의 형태(물질)라는 테두리 속에 갇혀서 정해진 방식으로 표현되었던 색채를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색채를 많이 사용하여 일명 '야수파'라는 이름을 듣게 된다. 그들 가운데 한명이 바로 앙리 마티스였다. 마티스의 그림은 색채의 강조를 위해 기본적으로 평면성이 강조된다.(입체성을 위해 명암을 그리게 되면 색채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작품의 주인공은 본인이 아니라 감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자신의 작품을 통해 언제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길 원했다고 한다.

1908년부터 마티스를 후원했던 슈킨은 자신의 대저택의 계



4

5



단 중앙에 전시할 그림을 마티스에게 요청했고 그래서 탄생된 작품이 바로 '춤'이다. 작품 속에는 원을 이루고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는 다섯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늘을 나타내는 푸른색과 땅을 나타내는 녹색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술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마티스는 태초의 순수한 인간을 표현하듯 춤을 추는 인간들을 모두 나체로 그렸다. 그림을 보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명확한 명암을 표현하지 않아 그림은 전반적으로 평면적이면서 동시에 색채의 순수성과 강렬함을 선사한다. 특히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중앙의 사람과 왼쪽 사람의 손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감상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그림 속 사람들의 춤이 꽤 격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크게 표현하여 화면에 꽉 차게 그렸는데 이는 감상자로 하여금 이들의 격렬한 춤이 그림을 뚫고 나올 것 같은 강한 운동력을 느끼게 해준다. 언제나 감상자를 생각했던 마티스의 작품의도를 기억한다면 대저택이라 꽤 많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움직임의 에너지를 선사하여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가볍고 힘차게 계단을 오르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소수의 엘리트, 다수의 시민

러시아 북서쪽의 이 아름다운 도시는 한 남자의 야망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북유럽의 베네치아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반이 약한 늪지대에 도시를 건설하다보니 사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당시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충 건물 아래에 버려지는 시신이 태반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시를 일명 해골의 도시라 부르기도 했다.

도시 건립뿐만이 아니다.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면 300년의 세월동안 이 도시를 지켜낸 것은 역시 다수의 시민들이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872일을 저항했던 제2차 세계대전 때이다. 당시 히틀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가전을 하면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해 도시를 포위하고 사람들을 굶기는 전략을 펼쳤다. 히틀러는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스스로 무너지리라 생각했지만 당시 시민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



4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5 앙리 마티스의 '춤'

6 앙리 마티스의 '붉은 조화'. 형태 속 색채를 독립시켰던 마티스는 종종 붉은색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활력을 전해주었다.

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히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일화가 감동적이다. 전쟁을 앞두고 박물관의 작품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박물관은 텅 비었다고 한다. 포위 공격이 길어지자 전쟁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어린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에르미타주 박물관으로 향했는데, 시민들이 찾아오자 박물관 해설가들은 마치 작품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해설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것은 배고픔과 죽음, 전쟁의 광기와 같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점에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특히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싶었던 앙리 마티스의 작품은 전쟁의 공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비록 작품이 눈앞에 없었음에도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결정을 하며 살아간다. 그 사람이 소수의 엘리트이든 다수의 평범한 시민이든 말이다. 그리고 결정 이후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라온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보면 역사는 분명 수많은 엘리트들의 결정에 의해 움직였지만 그 결정을 실행해주었던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평범한 시민들 가운데 비범함을 보여주었던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하는 것 같다.

테마가 있는 여행

## 바다를 이어 추억을 엮는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도 지나고  
조금은 쌀쌀해지는 바람이 기분좋은 10월 11일,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들과 떠나는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0월의 테마여행지는 시원한 바다 풍광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  
떠나는 여행에 정기회원 가족들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여가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두시간 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남해 관음포만 일원에 조성  
된 '이순신 순국공원'. 관음포만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이자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노량해전 현장으로, 관음포 앞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바다라는 뜻으로 '이락포(李  
落浦)'라고도 불린다. 이순신 순국공원에는 사적 232호로  
지정된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외에도 이순신영상관,  
호국광장, 관음포광장 등이 구성되어 있어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은 물론 호국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남해군의  
대표적인 역사공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순신 순국공원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  
사의 안내에 따라 이순신영상관으로 향했다. 이순신영상관  
은 118석의 관람석을 갖춘 국내 최초 돛형 입체영상관으로,







1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배울 수 있는 '이순신공원'  
2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관음포만



3-4 남해국제탈공연예술촌을 둘러보는 정기회원  
5 이충무공의 사당인 이락사



입진왜란 최후 전투인 노량해전을 입체영상으로 제작한 '노량'이 상영되고 있어 이 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3D로 보는 생생한 전투장면에 회원들의 감탄이 절로 나온다.

영상 관람 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본격적인 공원 투어에 나섰다. 호국광장에 나서자 관음포 앞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판옥선 지휘소에서 조선 수군을 진두지휘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순신공원 상징조형물이 회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곳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생한 전쟁모습을 타일로 연출한 순국의 벽, 노량해전 전몰조명 연합수군 위령탑. 아산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진검 모형,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역사내용을 새겨놓은 각성공원 등 다양한 전시물이 구성되어 있다.

호국광장을 나와 다음 도착한 곳은 '이락사(李落祠)'라고도 불리는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사적 232호). 이곳은 이순신 장군의 유해가 맨 처음 육지에 오른 곳으로, 이순신 장군의 8대손으로 통제사가 된 이항권이 세운 유허비와 이충무공의 사당인 '이락사'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 곳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사철 푸른 육송이 이순신 장군

테마가 있는 여행



6·7 '유배문학'이라는 독특한 테마로 조성된 남해유배박물관

의 충절을 기리기라도 하듯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이락사에서 이 숲길을 따라 500m를 더 오르면 노량해전의 전장이 한눈에 보이는 첨망대(瞻望臺)가 자리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관음포 앞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첨망대를 마지막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 한 정기회원들은 맛깔스럽게 차려진 해물된장찌개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남해의 또다른 명소인 남해유배문학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배문학'이라는 독특한 테마로 조성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남해유배문학관은 유배문학실과 유배체험실, 남해유배문학실, 향토역사실 등 다양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제주, 거제 등과 더불어 남쪽의 대표 유배지로 유명했던 남해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남해를 거처한 유배객만 2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구운몽'으로 유명한 서포 김만중 외에도 조선 후기 문신이었던

후송 유의양, 조선 전기 4대 서예가로 이름을 날린 자암 김구, 약천 남구만 등 당시 이름을 날린 여러 문장가들이 이곳 남해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이들은 권력도 부귀도 모두 빼앗긴 삶 속에서도 '구운몽', '화천별곡', '사씨남정기', '남해문견록' 등 빛나는 유배문학 작품을 남기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문학과 예술의 꽃을 피웠던 선조들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다.

해설사가 들려주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남해유배문학관을 둘러본 회원가족들은 남해의 특산물인 마늘을 알리는 이색전시관 '보물섬 마늘나라'로 자리를 옮겼다. 예로부터 유명했던 해풍을 맞고 자란 남해 마늘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국내 유일의 마늘 박물관인 '보물섬 마늘나라'는 마늘모양을 본 딴 거대한 조형물 안에 제 1·2전시실과 입체영상정보실 등이 자리하고 있어 마늘의 기원과 역사, 재배방법, 효능 등을 입체적으로 접할 수 있다. 남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색 전시에 색다른 재미를 느낀 회원들은 또다른 명소인 남해국제탈공연예술촌으로 발길을 옮겼다.

지난 2008년 5월, 폐교된 다초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남해국제탈공연예술촌은 다초실험극장과 전시실, 도서관 등을 갖춘 다목적 예술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전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장을 지낸 김홍우 교수가 기증한 공연예술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세계 40여개국 탈 700여점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발간된 2만 여점의 전문서적, 영상자료 3천여 점, 팸플릿 4천여 점, 포스터 3천여 점 등 총 25만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특히 2층 탈전시실에서는 소형 탈에서부터 대형 탈까지 색채와 모양이 다른 세계 여러나라의 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세계 각국에 산재하는 탈의 종류에서부터 탈의 역사, 가면극의 종류, 탈 제작방법 등 탈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남해국제탈공연예술촌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남해에서의 탁 트인 바다, 수려한 자연 속에서 함께 했던 가족, 친구들과의 정겨운 여행은 힐링여행으로 오랫동안 회원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다.



12.13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여행

조선시대 서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낙안읍성을 시작으로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선정된 아름다운 순천만으로 떠나는 초겨울 여행,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검은머리갈매기, 황새, 저어새 등 국제적 희귀조류를 비롯한 200여종의 조류, 아름다운 순천만의 S자형 수로, 갈대 장관을 만난다.

### 일정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순천 낙안읍성 도착, 탐방
- 12:00 중식
- 13:00 순천생태공원 생태 탐방
- 15:00 순천문학관 탐방
- 16:00 부산으로 출발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 팀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 11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권미경(동래구 명륜로)	오현주(수영구 광안해변로)	정유미(기장군 기장읍)
김대규(남구 황령대로)	유경숙(남구 유엔평화로)	정인옥(해운대구 대천로)
박은진(해운대구 대천로)	이재옥(해운대구 해운대로)	
서진숙(남구 황령대로)	임윤향(연제구 과정로)	

### 기존 회원

권영숙(남구 못골번영로)	문혜정(부산진구 시민공원로)	이당관(부산진구 백양대로)
김은경(남구 유엔로)	송만오(남구 석포로)	조경희(남구 오륙도로)
김신숙(남구 분포로)	양지훈(부산진구 중앙대로)	
노숙자(해운대 달맞이길)	옥희선(사하구 다대로)	



#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프리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시아와 친구들-트레저헌터즈’**

아시아 각 지역을 상징하는 유쾌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동물친구들의 모험을 통해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어린이뮤지컬 ‘시아와 친구들-트레저헌터즈’가 11월 1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국내 최대의 어린이 문화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어린이문화원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어린이 시아(Sia)와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상징하는 동물 친구들인 고니(Gonee, 용), 페리(Paree, 앵무새), 칼리(Kalee, 자칼), 엘리(Elee, 코끼리), 키니(Keynee, 원숭이)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아(Asia)의 약어인 시아(Sia)는 호기심이 많아 문화를 탐구하는 어린이로 나머지 다섯 친구들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아시아의 상상지킴이 ‘용(Dragon)’과

애칭접미사 ‘e’가 결합한 고니는 동북아시아를 상징하며, 경계를 가로질러 자유롭게 교류하고자 하는 ‘연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빼어난 언어구사 능력을 지닌 앵무새 페리는 사람들에게 소통과 정보를 주는 역할로, 중앙아시아를 상징한다. 남아시아가 대표권역인 코끼리 엘리는 수학과 과학에 뛰어나고 무엇이든 조립하고 탐구하며 코를 손보다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서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칼 칼리는 학구파이자 열정과 모험정신이 강한 친구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원숭이 키니는 풍부한 상상력과 총명한 예술적 끼를 지닌 예술가로, 톡톡 튀는 창의력을 보여준다.

지난 201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어린이날을 맞아 첫 선을 보인 전 세계 어린이들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한다. 초연 당시에는 영어 뮤지컬로 제작되면서 그 해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극장에서 공연되어 현지 관객 1,400여 명이 몰리는 등 큰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즐거운 노래, 멋진 춤과 더불어 각국 어린이들의 전래놀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귀여운 캐릭터 인형 탈에서부터 랩, 비보잉, 드론을 타고 등장하는 페리까지 볼거리가 풍성해 어린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일시**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review

1

프리뷰

Preview

2



**일시**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 부산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연주회 세계를 품다(Embrace the World)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선정을 위한  
 부산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연주회가 11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경연 마지막 주자인 루마니아 출신의 지휘자 아드리안 스타나케(Adrian Stanache)가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오는 11월 25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세계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로, 세계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세계를 품다'라는 부제로 평화음악회로 꾸며진다.

객원지휘자 아드리안 스타나케는 현재 루마니아 국립 올레그 다노브스키 콘스탄자 오페라합창단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국립음악대학교와 부카레

스트 음악원에서 기악과 작곡, 음악학을 전공했으며, 헝가리 리스트 국립음악원에서 마스터 클래스 디플롬을 취득하고 부카레스트 국립음악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 카르멘 블라데스쿠-아라드 오페라, 국립 엘레나 테오 도리나-크라이오바 오페라, 국립 에네스쿠-야쉬 오페라, 국립 다니엘라 브롬버스쿠-부카레스트 오페라에서 합창지휘와 예술감독을 겸했으며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20여개 국 초청연주회를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스타나케는 지난 2018년 부산시립합창단 객원지휘자로 무대에 선 바 있어 부산관객과도 친숙하다. 1부 무대에서는 슈만의 '유랑의 무리', 로시니 '사랑', 포레 '파반느' 등 유명 가곡 외에도 루마니아와 한국 전통민요인 'Dorul', '아리랑'을 각각 들려주며,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투우사의 합창'을 통해 오페라 전문합창 지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2부 무대에서는 팔레스트리나의 '구세주의 존귀하신 어머니', 올라도 디 라소의 '마토나 사랑스런 처녀', 로시니의 '구원을 위한 희생', 브람스 '고요한 밤에', 브루크너 '자비', 풀랑크 '성모찬송' 등 무반주 합창곡들로 구성, 아카펠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마지막 무대인 3부에서는 모차르트, 브람스의 레퀴엠과 더불어 3대 레퀴엠이라 불리는 포레의 '레퀴엠'을 들려준다. 



## 2019 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5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Best of Best

2017년 첫 선을 보인 후 시즌 다섯 번째 무대를 거치며  
(재)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2019년 마지막 무대가  
11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파격적인 기획과 도전으로 수많은 매스컴의 찬사를 받은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이자 특유의 입담과 유머로 클래식 해설가로 명성을 얻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해설로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의 연주, 소프라노 이은희, 테너 이동명, 바리톤 장광석의 협연으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아리아 베스트로 관객들과 만난다.

소프라노 이은희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로마 아카데미와 Torre Franca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이탈리

아 베로나 '아레나', 나폴리 '산카를로', 폴란드 '슬라스카' 등 유럽의 주요 오페라극장에서 활동하는 등 3천여회가 넘는 무대에서 왔다.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이동명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밀라노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2006 최고테너상을 비롯해 이탈리아 몬테베르디콩쿠르 1등, 부스꼴도콩쿠르 1등 등 20여개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주)열린아트컴퍼니 예술감독,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상임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장광석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립대학교 오페라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 지난 2012년 귀국 후 오페라 가수로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소프라노 이은희는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테너 이동명은 레온카발로 오페라 '팔리아치' 중 '의상을 입어라',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이루고'를, 바리톤 장광석은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나비는 날지 못하리', 베르디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를 들려준다. 🇰🇷



**일시**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review

3

프리뷰



**일시**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한·아세안 세계 정상회의 축하공연**

11월 25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세계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가 11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한·아세안 세계 정상회의’는 한국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과의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정상회의 첫날인 11월 25일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김정수가 지휘하고 소리꾼 이춘희, 강효주, 소프라노 박은주, 부산시립합창단의 협연으로 우리 전통의 멋과 신명이 넘치는 무대를 펼친다.

첫 곡인 ‘수제천’은 관악기의 힘차고 화려한 선율로 궁중음악의 장중한 멋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박춘석 악장의 집박으로 연주

된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준가, 태평가’로 소리꾼 이춘희, 강효주가 들려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이자 (사)한국전통민요협회 이사장으로 있는 이춘희는 제주 한라문화재 대통령상, KBS국악대상, 제32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서울특별시 문화상(국악분야), 독일음반비평가상 월드뮤직상 등을 수상했으며, 2004년 화관 문화훈장을 서훈받은 바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있는 강효주는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부수석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서는 창작국악관현악 무대로,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수영농청놀이’의 노동요를 주제 멜로디로 작곡한 수영농청놀이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태양 아래서’(양승환 곡)에 이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국제도시 부산의 매력을 경쾌한 디스코 리듬으로 풀어낸 국악관현악 ‘Disco Busan’(원일 곡)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으로는 오대양 육대주로 뻗어나가는 부산의 희망찬 모습을 그려낸 타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희망은 자란다’(백규진 곡)로, 소프라노 박은주와 부산시립합창단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박은주는 1995년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의 루치아 역으로 데뷔한 후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다수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주역가수로 활동해왔다.



## 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 南風-South Breeze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선정을 위한 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이 11월 28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수석안무자 선정 공연시리즈’는 부산시립무용단이 그동안 가져왔던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전문가 추천제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가 정기공연에 참가, 전문가 평가 및 단원 의견 수렴, 관객들의 반응조사 등을 통해 수석안무자로 선임된다.

그 첫 번째 경연무대의 주인공은 부산 출신으로 이정윤댄스시어터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윤.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예술전문사)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무용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정윤은 지난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선정 예술가, 제30회 동아무용콩쿠르 금상, 2012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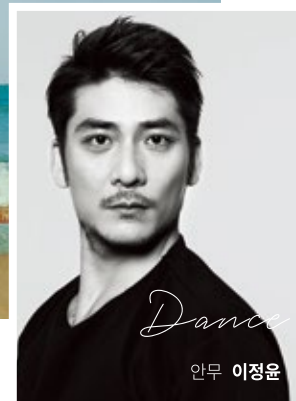
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정윤은 지난 2002년 국립무용단 입단 첫 해 주역무용수로 데뷔한 후 한국무용계의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하며 2014년 퇴단하기까지 수석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했다. 이후 안무가 및 무용수로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는 한편, 2018년부터는 대만 타이페이 국립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특채 임용되어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은 이정윤의 연출, 안무로 창작춤 ‘남풍-South Breeze’을 선보인다. ‘남풍(南風)’은 인간의 내면에서 불어오는 의지의 바람이며 ‘숨’을 통해 그 형상과 감정을 드러낸다. ‘숨’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자 신비이며 그 자체로 모든 존재의 기원이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 역사의 소용돌이에 의해 남겨진 상처들과 끊어진 숨들은 안식과 기회, 치유의 시간들을 열망하며 새로운 시작과 다시 만나는 세계를 꿈꾼다.

이정윤 안무가는 이번 무대에서 그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연출과 안무로 한국춤의 호흡기법과 움직임을 다양한 예술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숨’으로 형상화하고 시각화하여 새로운 남풍의 옴파로스(Omphalos)를 표현한다. 특히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 무대, 조명, 아트&테크놀러지, 의상, 사운드 등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이 함께 한다. 



**일시** 11월 28-29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Preview

5

프리뷰

Preview

6



**일시** 12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라 트라비아타&라 보엠 운명적 사랑**

2022년 완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지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가  
 12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라 트라비아타&라 보엠 운명적 사랑’이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  
 번 무대에서는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이끄는 네오피하모닉오케스  
 트라의 연주,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사회, 소프라노 김성은, 박  
 현주, 왕기현, 테너 김충희, 허동권, 바리톤 박대용, 베이스 바리톤  
 최현욱이 출연, 운명적 사랑을 노래한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  
 아타’,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소프  
 라노 김성은은 전국대구콩쿠르 대통령상, 부산음악상, 스페인 비

냐스 1등, 아라갈 콩쿠르 1등 등 국내외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했  
 으며, 이태리 베로나 아레나 야외극장에서 동양인 최초로 오페라  
 ‘리골레토’ 타이틀롤인 질다 역을 맡아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숙명  
 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박현주는 동아콩쿠르 1위, 독  
 일 베르크하임콩쿠르 1위, 쾰른국제음악콩쿠르 1위 및 관객상, 독  
 일 NRW 올해의 스타상, 한국오페라상 여성성악가상 등을 수상  
 했다. 소프라노 왕기현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유럽 극장에  
 서 데뷔한 후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며, 귀국 후에는 전문성  
 악가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김충희는 유럽을 중심으로 700여  
 회가 넘는 오페라 무대의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 독일 튜  
 링엔 주 최고의 예술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 이마에스트리  
 단원으로 있는 테너 허동권은 이태리 카루소, 알카모, 비씨 다르  
 떼, 브린디시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그동안 오페라 주역으  
 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박대  
 용은 이태리 프란체스코칠레아 성악콩쿠르 우승, 콜레페로 국제  
 성악콩쿠르 2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부산 예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외래교수로 있  
 는 베이스바리톤 최현욱은 다수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서는 한  
 편, 아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피아노 독주회

화려한 테크닉과 섬세함, 그리고 폭발적인 열정의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12월 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세계무대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를 갖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이어  
지는 백혜선의 '2018-2020 시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프로젝트의 가장 주요한 무대로, 그의 음악인생에서 가장 소중했  
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28번을 비롯해 소나타 제31번, 제32  
번 등 자신이 피아니스트로 성장하는데 큰 도전이 되었던 세 곡  
을 들려준다.

백혜선은 지난 1989년, 3년간 1위 우승자를 내지 못했던 메릴랜  
드 윌리엄 카펠 콩쿠르에서 1위 우승하며 미국 뉴욕의 링컨센터  
앨리스 툴리홀에서 데뷔무대를 가졌다. 이번 무대에서 연주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28번은 백혜선이 당시 데뷔무대에서 연

주했던 곡이자 수많은 콩쿠르에서 수상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곡  
이다.

윌리엄 카펠 콩쿠르를 시작으로 헬렌 하트, 리즈,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 굵직한 해외 콩쿠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던 백  
혜선은 199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없는 3위로 입상하며  
EMI 인터내셔널 클래식에서 한국 피아니스트로는 최초로 음반 3  
개를 발매하는 등 국내 클래식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1995년에는  
29세의 젊은 나이로 최연소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  
를 모았으며 이후 10년 뒤에는 항상 도전하는 음악인이 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미국과 한  
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백혜선은 현재 연주활동  
과 병행하면서 보스턴 뉴잉글랜드 음악원, 클리블랜드 음악원, 대  
구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후진양성에도 힘쓰는 한편, 부산  
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백혜선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 클래식계의 대모(代母)로 지  
난해 12월 타계한 부산아트매니지먼트 故 이명아 대표를 추모하  
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지난 1995년부터 연주자와 기획자로  
만나 20여년 이상 이명아 대표와 음악적 동지로 우정을 나뉘은  
백혜선은 1주기를 맞는 이명아 대표를 기억하며 오랜 벗을 위한  
작은 추모의 무대를 마련한다. 🎵



**일시** 12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review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with 임동혁

이 시대 가장 뛰어난 첼리스트에서 최고의 여성 지휘자로 거듭난 장한나와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세계 3대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입상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열린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지휘자 장한나가 이끄는 해외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공연으로, 그가 2017/18 시즌부터 상임지휘자 및 예술감독으로 있는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무대에 선다.

### ‘첼로의 신동’에서 지휘자로 비상

지난 1994년, 11세의 나이로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하며 국제무대에 데뷔한 장한나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가 꿈은 단 한 명의 제자로, 이후 ‘첼로의 신동’으로 불리며 첼리스트로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갔다. 2001년, 다른 연주자들과는 달리 돌연 미국 하버드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여 연주와 학업을 병행하던 장한나는 2003년부터는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지휘를 공부했다.

‘첼로할 때 50곡 정도를 익혔다면, 지휘를 하면서는 300곡 이상을 익히고 있다’는 장한나는 2007년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국제청소년관현악축제에서 지휘자로 공식 데뷔한 후 지휘자로서도 알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오슬로 필하모닉,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쾰른방송교향악단, 밤베르크 교향악단,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시내티, 세인트루이스, 인디애나폴리



스, 시애틀, 고센버그, 싱가포르,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오케스트라 등을 객원 지휘했으며, 2013년 카타르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을 맡아 이듬해인 2014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축제인 BBC 프롬스에서 데뷔무대를 가졌다. 지난 2015년 영국 클래식 전문지 BBC 뮤직 매거진이 선정한 '현재 최고의 여성 지휘자 19인'에 이름이 오르기도 한 장한나는 지난 2013년부터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동하다 2017년 9월부터는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909년 창단되어 11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그 명성에 걸맞게 그동안 다니엘 하딩, 크쉬슈토프 우르바인스키 등 젊고 재능있는 많은 지휘자들이 거쳐갔으며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인 투어를 계속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한 피아니스트

이번 무대의 또다른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임동혁.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마스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이듬해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1위 수상과 더불어 5개상을 휩쓸며 세계적인 주목

# 11. 14<sup>목</sup>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석 12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을 받기 시작한 임동혁은 2003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편파 판정에 불복, 수상을 거부하며 핫 이슈를 불러일으켰으며, 2005년 제 15회 국제쇼팽콩쿠르 3위, 2007년, 제13회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부문 1위 없는 공동 4위를 수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장한나와 임동혁의 첫 만남

비슷한 나이의 장한나와 임동혁은 같은 음반사(구 EMI)로 활동 시기도 비슷했으나, 단 한번도 같은 무대에 섰던 적은 없다. 한 무대에서 보기 힘들 것 같았던 이들의 조합은 이번 무대를 통해 현실화 된다. 지휘자 장한나와 그가 이끄는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들려주는 노르웨이 대표 작곡가인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은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 무대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그리그의 '페르퀀트 모음곡 1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 '비창'을 감상할 수 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서 테리 라일리까지

##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장 나들이 하기 좋은 늦가을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우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제556회 정기연주회 '아홉, 열, 열하나'가 11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어 11월 29일 챔버홀에서는 정기연주회에서 감상하기 힘들었던 실내악 걸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 연주회 '실내악 공장'이 무대에 오른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대가 적어 낯설 수 밖에 없었던 현대음악을 소개하는 '심야음악회'는 올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무대로, 12월 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제목 그대로 늦은 9시에 시작되는 심야음악회로, 한밤의 낭만과 실험적인 현대음악이 빛어내는 특별한 감상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1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6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X 아홉, 열, 열하나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지난 2017년 신임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최수열 지휘자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첫 번째로 마련한 프로젝트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이 열 번째 무대를 끝으로 3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감각과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지휘자

로 평가받은 최수열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교향악단으로는 처음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완주하여 대한민국 교향악사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마지막 무대에서는 슈트라우스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동명 철학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작곡한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들려준다. 이밖에 차세대 최고 오르가니스트로 평가받는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의 협연으로 생상의 교향곡 제3번 '오르간'과 현존하는 스웨덴 최고의 작곡가로 꼽히는 안데르스 힐보리의 '열한 개의 문'을 감상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있는 신동일은 연세대학교와 프랑스 리옹국립고등음악원, 파리국립고등음악원, 미국 보스턴음악원을 졸업하고 2006년 제20회 그랑프리드 샤르트르 국제 오르간 콩쿠르 대상을 비롯해 1996년 무사시노-도쿄 국제 오르간 콩쿠르, 1999년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 콩쿠르, 2001년 제21회 St. Albans 국제 오르간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작곡가 중 한명인 안데르스 힐보리의 '열한 개의 문'은 변화무쌍한 11개의 짧은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특하면서도 친숙한 선율로 현대음악이 낯선 감상자들에게도



쉽게 호감이 갈 만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무대의 하이라이트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 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특히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더욱 유명해 졌는데, 웅대하고도 풍부한 악상과 치밀한 묘사력, 탁월한 관현악 기법으로 교향시 장르의 최대 걸작으로 꼽힌다.

## 2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지난 5월에 첫 선을 보여 호평을 받았던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특히 정기연주회에서는 감상하기 힘들었던 실내악 걸작들을 선보이면서 다양한 매력의 악기들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첫 무대는 플루티스트 조성철, 오보이스트 류재환,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 바수니스트 장정호, 호르니스트 최영희, 피아니스트 이은정으로 구성된 피아노&목관 5중주가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선율을 통해 작곡가 특유의 정서를 잘 표현한 폴랑크의 ‘피아노와 목관 5중주를 위한 6중주’를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요셉 투린의 ‘트럼펫, 트럼본과 피아노를 위한 판당고’로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멤버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트럼펫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트럼보니스트 정선화와 피아니스트 이은정이 호흡을 맞춘다. 2부 무대에서는 퍼커셔니스트 나종용, 김자연, 박용갑, 박찬식, 배지훈으로 구성된 타악양상블의 무대로, 박자의 맞물림이 주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스티브 라이히 ‘나무조각을 위한 음악’을 비롯해 조지 해밀턴 그린, 젠 코신스키, 데이비드 스킵드모어, 앤소니 J. 써론, 나탄 도트리 등 다채로운 타악양상블의 향연을 펼친다.

## 3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12월 4일 수요일 오후 9: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심야음악회’는 음악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동시대 음악인 현대음악을 소개한다. 그 첫 번째 자리로,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음악의 복잡하면서도 지나치게 세련된 양식에 반발하여 1960년대 미국에서 새롭게 나타난 ‘미니멀리즘(Minimalism) 음악’을 소개한다. 예술감독 최수열과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미니멀리즘 음악의 최전선에서 이를 이끌어온 필립 글래스, 존 애덤스, 테리 라일리 등 세 명의 작곡가의 작품을 들려준다.

첫 곡으로는 현대 예술사에 미니멀리즘을 제시하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아우르는데 성공한 미국의 작곡가 필립 글래스의 ‘글래스 워크스’ 중 ‘패사드(facades)’를 들려준다. 이번 무대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 ‘글래스 워크스’는 도입부의 예리하고 강력한 음향, 촘촘하게 짜여진 곡의 형식과 구조, 느린 속도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패턴 등이 특징적이다.

이어지는 곡인 존 애덤스의 ‘롤라팔루자’는 20세기 후반 이후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작곡가 존 애덤스가 지휘자 사이먼 래틀의 40번째 생일을 위해 만든 소품곡으로, 박진감 넘치는 진행 속에서 이국적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부각시키다 호른과 트롬본, 팀파니와 베이스 드럼의 연주로 마무리 한다.

마지막 곡으로는 20세기 현대음악의 대표주자로 일컬어지는 테리 라일리의 대표곡 ‘인 씨(In C)’를 들려준다. 반복의 모티브를 사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C음을 반복하는 ‘In C’는 연주자들에게 반복 횟수, 빠르기 등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연주할 때마다 매번 다른 버전이 탄생된다.



## Made in 부산문화회관 리골레토

###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 .... 음악평론가 김윤선

부산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처음 제작한 오페라 ‘리골레토’ 공연이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열렸다. 정상급 성악가들의 캐스팅과 (재)부산문화회관이 기획한 첫 오페라라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많은 이들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었고 흥행에도 성공했다.

이탈리아 오페라 역사 그 자체인 베르디, 그의 작품 ‘리골레토’는 베르디의 중기 작품으로 ‘라 트라비아타’, ‘일 트로바토레’와 더불어 걸작 오페라로 손꼽힌다. 그러나 만토바의 아리아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으로 인해 자칫 가볍고 단순한 바람둥이 이야기로만 오해하기 쉽다. 이 오페라는 귀족인 젊은 테너 만토바 공작,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프라노 질다에 결코 가려져서는 안 되는 바리톤 리골레토가 주역으로 벨칸토 창법의 가창력과 연기의 비중은 물론이고 몬테로네, 스파라푸칠레 등 조역들의 활약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복잡한 구도를 가졌다.

막이 오르고 모던한 무대 세트가 눈에 띈다. 2층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합창과 팡파르, 1층 무대의 현란한 춤들은 원작에서 드러낸 신분의 높고 낮음, 진실한 사랑과 가벼운 사랑, 아

침과 분노 등 이분화된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창의적인 공간 배치에 집중한 연출의 묘를 생각해 하며 오페라가 시작된다.

만토바 공작의 저택에서 파티가 한창이다. 공작의 진지하지 않은 여성편력과 이를 두둔하는 리골레토, 꿈추에 다리가 절며 귀족에게 아침하는 궁정광대 리골레토를 몬테로네가 저주하며 머지않아 닥칠 불행을 암시한다. 비장하고 음침한 캐릭터 스파라푸칠레의 무거운 베이스 음색이 암살을 일삼는 살인청부업자로부터의 강한 복선을 깔고 사라진 뒤 리골레토가 첫 번째 아리아 ‘우리는 둘 다 똑같군(Parsiamo!)’을 탄식하며 자조하듯 불러낸다. 이어 리골레토의 유일한 희망인 딸 질다와의 2중창 ‘딸아...아버지...(Mia figlia, mio padre)’는 딸에게 비밀이 많은 아버지 리골레토와 알고 싶은 것 많은 순진한 딸의 갈등을 예감하게 하나 아버지의 딸을 향한 사랑이 묻어난다. 드디어 공작과 만난 후 가난한 학생인 줄만 알고 사랑에 빠져 부르는 질다의 노래 ‘그리운 그 이름이여(Caro nome)’를 소프라노 강혜정은 완벽한 테크닉에 고취된 감정을 표현하며, 2층 테라스를 지나 사라지는 장면은 순종하는 착한 딸에서 여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의 연출로 황홀함을 그려냈다.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만토바 공작과 그를 사랑하는 질다, 신체적 장애와 미천한 신분으로 인한 콤플렉스를 가진 리골레토의 딸을 향한 집착과 애정, 이 세 사람의 극적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2막이다. 공작의 카바티나 ‘그녀의 눈물이 보일 것 같다(Parmi veder le lagrime)’는 테너 이재욱의 유려한 음성의 사랑 노래와 대조되어 납치한 딸을 돌려달라고 폭풍 같은 화를 내며 절규하고 읊소에 이르도록 부르는 ‘궁정의 가신들아(Cortigian! Vil raza dannata)’는 고성현의 진지한 연기와 가창력에 의해 진한 감동을 준다.

치닫는 갈등을 품은 채 3막에서의 만토바의 아리아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은 바람둥이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경박하고 가볍기까지 하다. 그의 치명적 바람기는 이내 암살자 스파라푸칠레의 동생 막달레나로 향하고 딸에게 만토바의 본색을 보여주는 리골레토, 두 남녀의 밀당 장면을 목격한 질다의 분노, 네 사람의 각자 다른 가사와 멜로디가 교차하는 무대는 각각의 정서를 음악적으로 극적효과를 보여주는 절묘한 장면이었다. 결국 복수의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질다를 향하고 딸의 주검을 두고 오열하는 리골레토의 절규는 오페라 명가수 고성현의 농익은 연기로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숨 막히는 감동으로 관객들을 몰아넣었다. 질다의 죽음은 베르디가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고 리골레토를 작곡했기에 더욱 그 슬픔이 작품에 투영됨을 알 수 있어 처연하기까지 했다. 천한 신분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표현을 흡인력 있게 표현한 고성현의 열연과 순수한 처녀가 여인으로 변해가는 농염함을 보여준 강혜정, 가책을 느끼지 않는 여성 편력을 일삼는 만토바 역의 이재욱의 중심적 구도에 맞장난 조역들이 작품 전체의 설득력을 더했다.

(재)부산문화회관의 오페라 ‘리골레토’가 막을 내리고 2022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둔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지역 오페라단들의 선전도 눈에 띄지만, 당면한 과제도 없지 않다. 우선 오페라를 위

한 특화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양성이 필요하다. 헤쳐 모여 식의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으로는 어떠한 작품도 완성을 이루기 힘들기 마련이다. 지속적인 오페라 공연을 위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안정된 팀워크를 이뤄낼 때 완벽한 무대 연출과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반주는 음악적인 힘을 더해 주었고 무용단의 안무가 종합예술의 꽃인 오페라의 제작에 있어 연출과 표현력을 높여 주었다. 음악사상 오페라가 시대에 맞지 않는 설정이나 의상으로 실패를 맛보았던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극장과 오페라단에서 모던한 무대 세트와 의상, 간결한 연출로 현대적 감각의 트렌드로 관객을 맞고 있다. 화려한 의상과 익숙하지 않은 동작들로 어색한 고전을 고집하는 오페라는 귀족적이고 사치스런 문화라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힘들다.

도시의 색은 문화가 말해 준다. 거시적 안목을 가진 행정과 무대의 턱을 낮추고 관객을 배려하는 예술가, 열린 마음으로 예술을 향유 할 줄 아는 가치 있는 눈높이를 가진 시민의식이 어우러진 문화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 다양한 연극을 동시에 보는 재미

제9회 나는 연출이다(2019년 10월 4일 - 10월 6일, 청춘나비아트홀)



◆ ..... 연극평론가, 전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허은**

‘나는 연출이다’는 올해로 9회를 맞이했다. 젊은 연출가 5인의 창작 단막극을 릴레이로 하루에 공연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오래전 이 기획을 처음 대했을 때, 폐쇄 공간 속으로 순간순간 흘러들어오는 산소를 들이마시는 느낌을 받았다. 젊은 인력과 전문연극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연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출가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하는 기획자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했고 이 기회를 통해 젊은 연출가들이 토해내는 진짜 연극을 기대했다.

해가 갈수록 이들이 만드는 작품들의 유형은 다양해졌고 기대 이상의 작품들이 공연되어 지역 연극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는 점점 커졌다. 척박한 풍토 속에서 발버둥 치는 듯 보이는 이들 참여 연극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다. 능력이 있으나 기회가 없는 젊은 연극인들에게 이 기회는 참으로 소중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만든 기획자의 아이디어가 빛난다. 기획자(강원재)의 말처럼 ‘모든 현실적 요구들로부터 자유로운 연출가를 위한 터전’으로서의 가치를 단단히 가질 수 있기를 기대했고 그 기대가 일부는 충족됐다. 관객과의 교감 역시 긍정적이었다. 관객들 또한 이 기획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완성된 작품을 보게 된다는 기대보다는 다양한 연극 세계, 그리고 가능성 있는 연극을 본다는 기대를 하고 공연장을 찾았다. 특히 관객들이 현장에서 작품을 평가하고 이들의 의견이 곧바로 공연 결과에 반영된다는 것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고 있는 듯이 보였다.

5명의 연출이 만든 작품들을 하나씩 완전하게 복기(復棋)하는 것은 기억의 부실 때문에 무모한 작업인지도 모른다. 하나씩 세밀하게 되돌릴 수 없긴 하지만 ‘나는 연출이다’의 경우는 각 연출이 나름의 독특한 연출 형식을 지니고 있기에 큰 범주에서 최근의 연극세대들이 지닌 연극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물론 제한된 공연 시간이 20여 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어서 연출의 참모습을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잘 만들어진 10초짜리 광고영상을 보는 듯한 짜릿함이 있었다.

내용과 형식이 일치해야 한다는 고전적 연극 문법은 거의 무시되었기에 마치 자동기술법처럼 우리의 혹은 그들의 머릿속에 움직이는 순간순간의 의식의 흐름이 자유롭게 떠다닌다. 내용과 표현형식의 통일성이라는 연극 문법에 대하여 고뇌하고 있음도 발견된다. 비록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하려는

상투적인 대사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여기서 상투적 대사라고 규정짓는 것들은 이들 연극 속의 인물이 작가나 연출의 주관적 세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연극 속의 인물은 상황이나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적어도 이런 연극 범주에서) 그 인물로서의 적절한 삶의 언어와 동작을 통해서 발화됨을 뜻한다. 이 경우에만 연극이 지향하는 리얼리티의 획득이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김동현 연출의 ‘레이디 맥베스와 미디어가 만나면’은 표면적으로는 가볍다. 그럼에도 짧은 시간 동안 연출, 연기, 상황의 선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 각 인물이 원작의 극 중 성격 나타냄을 포기하고 바로 그 극 속에서의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면서 바로 지금 이곳으로 시간과 공간을 옮겨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리얼리티가 있다는 얘기이며 그래서 공감을 준다. 물론 김혜정이라는 배우의 힘이 전체의 균형을 잡은 것도 완성도를 높이는 이유가 된다.

이에 반해서 표현에 대한 집착 내지는 새로운 형식의 발견을 위해 애쓴 ‘해감’(박용희 연출)은 ‘무엇을’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에 충실한 공연이었고 연출이 그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이 보인 작품이다. 극소화된 조명 영역을 통해 보인 사형수의 모습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연기자들은 진지했다. 그런데도 리얼리티가 없어 보이는 것은 결국 그러한 상황이었음 직한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임이 노출되었기에 어설픈게 다가온다. 대사 하나하나 진지하지만, 상황은 진지하지 못했다. 상황과 그 속의 인물이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관객은 더 큰 진지함을 얻게 될 수 있다.

‘연습학교’(김하영 연출)는 연극의 본질 문제에 대한 연출의 태도와 인식을 보여 준 작품이다. 연출자의 말처럼 놀이는 진지한 것이다. 호이징하는 ‘호모루덴스’에서 놀이는 진지함과 더불어 본능적이며 자발적이며 자유로운 것이라 했다. 연극에서 놀이성을 표현의 형식으로 가져온다는 그것은 그들

의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놀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바탕으로 할 때 놀이라는 단어를 연극과 만나게 한 의미가 생산될 수 있다. 분명히 이 공연은 놀이처럼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놀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놀이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흥내만 내는 놀이는 진정한 놀이가 아니다.

최용혁 연출의 ‘꽃과 별과 노래 그리고 시’는 어떤 의미에서 세련되어 있다. 연출은 몇몇 작품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연극제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다. 그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희곡 텍스트의 해석과정에서 보여준 진지함과 정밀함이 었다. 그러나 이번 작품의 경우는 글쓰기와 연출을 동시에 하면서 노출된 과도한 주관적 세계였다. 관객은 보다 객관화된 연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능동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연출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자기 세계에 너무 깊숙이 빠질수록 관객은 소외되고 외로워진다.

이번에 공연된 다섯 작품 모두 진지하다. 그러나 그 진지함이 관객에게 강요되면 진정한 소통은 어려워진다. 관객에게 스스로 진지할 수 있는 자유를 좀 더 주었으면 한다. 암튼, 이번 ‘나는 연출이다’는 언제나 그렇듯이 가능성은 보여주었다. 더 진지한 연극이 되기 위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되리라 믿는다.





## 그러나 바다는 없고 상심만 남은 전시

###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상심의 바다(Sea of Heartbreak)’



◆ ..... 큐레이터, 김해문화도시 센터장 **이영준**

#### 바다미술제가 걸어온 길

1987년 처음 개최된 바다미술제. ‘바다’라는 자연환경에 펼쳐지는 야외설치미술제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프레올림픽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발족했고 1996년까지 매년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개최됐다. 1998년부터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 2002년부터 부산비엔날레 행사로 통합되었다. 2011년에 부산비엔날레로부터 분리하여 짝수 해에는 부산비엔날레, 홀수 해에는 바다미술제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송도해수욕장에서 진행됐고 2015년과 2017년은 다시 장소를 옮겨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됐다. 바다미술제 초기에 ‘바다’는 ‘여백’과 ‘배경’이었다.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백사장과 그보다 더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프로젝트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의 물리적 힘을 감당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2006년을 기점으로 ‘전시기획’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공미술의 개념이 접목되거나 다양한 담론들이 각축하는 장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바다를 벗어난 과감한 시도가 있었고, 전근대적인 방식인 공모제를 과감하게 폐지함으로써 감독의 기획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지역의 삶과 마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

기도 했다. 바다미술제는 매회 새로운 진화를 위한 몸부림을 펼쳐왔다.

#### 2019 바다미술제의 작가와 작품들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상심의 바다(Sea of Heartbreak)’에는 그 자체로 의미를 발산하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제목에서 유추 할 수 있듯이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발언이 많았다. 홍콩의 아트 투게더는 <상심의 웅덩이>를 통해 해수면 상승을 물리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1.6m의 깊이로 파인 나무 구조물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변화와 상승을 간접 체험하게 된다. 본폴 포티산의 <바다의 절규>는 인간의 귀 형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바다의 소리 없는 외침을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알프레도 & 이자벨 아퀼리잔의 <바람의 이야기, 바다의 서사>는 대나무 기둥 1,500여 개에 1,100여 개의 흰 리본과 대나무로 제작된 400여 개의 윈드 하프를 고정시킨 설치 작품이다. 불어오는 바람에 독특한 소리를 내는 윈드 하프를 병치시켜 인간에게 전하는 자연의 비극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 방울의 물에서 바다의 모든 비밀이 발견 된다’는 뜻을 담은 이창진의 <수통>은 인

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페트병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포장되어진, 하지만 자연에는 치명적인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광기 작가가 다대 쓰레기 조각장의 외벽에 설치한 <쓰레기는 되지말자>는 환경에 대한 가장 직설적인 텍스트였으며, 이승수의 시멘트로 만들어진 군상들은 인공과 자연의 부조화에 대한 메타포였다.

그 외에도 거주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다룬 송성진, 예술노동과 조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임협 프로젝트, 위태로운 자연의 생태계를 문화생태계로 비유한 성백, 자연과 인간의 몸의 관계를 퍼포먼스로 드러낸 김보경,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체험하게 만드는 최수환 등 바다미술제에서 만난 작가들의 작품은 다대포의 노을과 함께 작품을 해석하는 즐거움을 선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 바다미술제의 딜레마

이번 전시는 한마디로 ‘바다는 없고 상심만 남은’ 전시였다. 광활한 바다라는 배경에 물리적인 오브제를 설치하는데 전력하다보니 ‘실험’과 ‘담론’은 자연스럽게 부차적인 차원으로 밀려나 버렸다. 스케일에 의지한 많은 작품이 더 넓은 다대포 바다가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여백 없이 가득 차 있었고, 굳이 다대포가 아니어도 무방한 작업들도 많았다. 참여 작가의 예술적 역량에는 이견이 없지만, 전시기획의 의도와 무관해 보이는 작가나 작품도 많았다. 특히 이번전시는 대안공간을 운영했던 비제도권 인사들이 집행위원장과 감독을 맡은 첫 번째 전시였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척 컸다. 하지만 서상호 감독이 보여준 바다미술제는 그동안 수많은 문제의식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비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험정신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거대한 자연에 오브제로 대응해왔던 관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전시였다.

바다미술제의 어두운 그림자는 현대미술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던 ‘장소성’이라는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 현대미술에서 ‘장소’는 발견된 개념이다. 화이트 큐브를 지양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야외설치전시의 기저에는 바로 발견

되어진 ‘장소’의 의미가 숨어있다. 이는 모더니즘의 ‘비장소성(Non-place)’에 대한 대안적 실험을 극대화하는 실천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술평론가 권미원은 이를 ‘공공장소에 위치한 예술(Art in public space)’, ‘공공장소로서의 예술(Art as public space)’ 그리고 ‘공공의 관심 속의 예술(Art in the public interest)’이라 분류한 바 있다.

이번 바다미술제는 권미원의 분류를 따르자면 ‘공공장소에 위치한 예술(Art in public space)’에 머무르고 있다. 바다는 아름다운 배경에 놓여진 오브제들이 그마저도 자연에 스며들지 못하고 어지럽게 펼쳐져 있다. “예술은 우리가 있는 ‘지금, 여기, 우리의 삶’과 연결될 때 비로소 찬란한 빛을 발한다. 2019바다미술제는 예술과 삶이 유리된 면모를 본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되돌리고 시민의 삶과 연결시켜, 새로운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서상호 감독의 이번 전시에 대한 코멘트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곳의 삶’과 연결된 지점을 찾을 수 없다. 물론 바다미술제는 태생적으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런 한계 속에서도 다양한 실험정신을 구현해온 과거의 미학적 성취들이 존재한다.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안적인 실험정신이 어떤 형식으로든 보여져야 했다. 이번전시는 바다미술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그 자체만을 보여주고 말았다.

### 쓰레기는 되지말자

개막식 이후 바다미술제를 다시 찾았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작품들은 새롭게 설치가 진행 중이었고 일부 작품은 유실되어 재 제작되고 있었다. 분주한 스탭과 작가들 사이를 거닐면서 작품을 살펴보는 동안 너무도 아름다운 다대포의 노을과 마주했다. “그저 텅 빈 바다여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광기 작가의 ‘쓰레기는 되지말자’라는 글에 불이 켜졌다. 그리고 보니 태풍의 영향으로 밀려온 온갖 부산물들이 다대포 백사장 여기저기에 산처럼 쌓여있었다. 그 어떤 작품보다 더 “상심의 바다(Sea of Heartbreak)”가 가슴을 헤집고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 부산와인스쿨 나눔행복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와인스쿨 나눔행복합창단 525-9100



부산와인스쿨 총동문회 원우들로 구성된 아마추어합창단인 나눔행복합창단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나눔행복합창단은 2017년 10월 25일 창단식을 가진 후 이듬해인 2018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보

즐레누보 페스티벌, 부산와인스쿨 와인페스티벌, 나눔봉사활동 및 공연, 부산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편성기 ● 반주/김경미
- 우정출연/정관여성 햇빛합창단
- 특별출연/해본 싱어즈

### 창단 22주년 해운대소리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단장 박기엽 010-2546-0830



지난 1997년 창단 후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아마추어 여성합창단인 해운대소리합창단의 11번째 정기연주회. 해운대소리합창단은 그동안 격년제로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으며, 정기연주회 외에도 해운대 해맞이축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협연무대, 부산합창제, 금정수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T-Band 블루 '열사가'

**일 시** 11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T-Band 블루 010-4591-0214



악가무가 한데 어우러지는 다양한 예술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부산, 영남의 푸른 바다처럼 맑고 시원한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모인 전통음악집단 티밴드(T-Band) 블루의 특별한 무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준,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등 일제의 부당한 식민지 지배에 맞섰던 열사들의 행적을 소개하고 항일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창작판소리 '열사가'를 들려준다.

- 대표/신호수 ● 스페셜 게스트/정순임
- 해설/정영진(부산문화재단위원)
- 총연출, 판소리/정선희 ● 야쟁 구름/정효선
- 타악/박천음 ● 피아노/김성수

###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미루샘 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320-8331



지난 1994년 창단 이후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일반 시민들과 문화와의 계층을 위한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온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미루샘여성합창단의 23번째 정기연주회.

미루샘여성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아시아게임 기념 행사공연, 부산-후쿠오카 교류음악회, 부산합창제 등 공연활동과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 지휘/한정현
- 피아노/최승희
- 찬조출연/정미향(성악), 하영언(첼리스트), 박미정(대금), 서수정(해금), 권혁득(피리)

###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 제9회 청솔합창단 정기연주회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일 시** 11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청솔합창단 010-8468-7883, 627-6001



남부산농협 주부대학 수료생들로 구성된 청솔합창단의 9번째 정기연주회.

2002년 독일 브레멘 합창올림픽 은메달, 2004년 세계합창올림픽 은메달 등 수차례 합창제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청솔합창단은 창단 30주년을 맞아 이번 무대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로 음악사랑을 펼친다.

- 단장/여성자 ● 지휘/강학운 ● 반주/손혜진
- 남성4중창/테너 신재복, 박천수, 바리톤 박찬, 베이스 최기호
- 반주/윤민화 ● 무용/이경화
- 전자현악/리즈

### Page Design과 함께하는 김정화 피아노 리사이틀 Begin Again

**일 시** 11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크레아 442-1941



지적으로 잘 통제된 깔끔하고 세련된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화 독주회.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보스턴음대에서 Merit Scholarship의 수혜자로 전문연주자 디플로

마(GPD)를 취득한 김정화는 그동안 아나체 현악 4중주단, 만하임 현악4중주단, 아나체 챔버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수차례 협연 및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현재 (사)민족음악학회 연구원, (재)부산문화회관 이사로서 전문 해설자와 클래식 음악 코디네이터, 피아니스트로 활동중인 김정화는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 부조니,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준다.



**동성 창립 60주년 기념  
동성 페스타  
영웅이 부르는 신세계**

**일 시**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예술 문화를 사랑하는 기업 동성과 글로벌 거장들이 만나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는 ‘동성 페스타’.

동성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

하고 최근 요아힘 콩쿠르 우승, 파가니니 콩쿠르 2위 등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이자 평창동계올림픽의 히로인 소프라노 황수미, 마성의 카리스마로 세계 오페라 무대를 누빈 바리톤 고성현 등 유명 연주자들이 출연, ‘새로운 내일을 여는 역사적 순간’을 주제로 클래식 향연을 펼친다.

특히 이번 무대는 ‘탄생’, ‘성공(신화)’, ‘영웅’, ‘신세계’ 등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기업 동성의 핵심가치인 ‘정심(正心)’,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장해온 역사를 음악으로 들려준다. 이번 무대는 메세나를 실천하는 동성 백정호 회장의 클래식 음악사랑으로 마련됐으며, 초등학생 이상 초대권 소지자라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작품 43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이지수/아리랑 콘체르탄테 ‘아리리요’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등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협연/김다미(바이올린), 황수미(소프라노), 고성현(바리톤)
- 해설/장일범(음악평론가)



**루보체 레이디스 싱어즈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루보체 레이디스 싱어즈 010-3837-9567



지난 2015년 11월 결성된 노래로 봉사하는 여성합창단인 루보체 레이디스 싱어즈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루체(Luce)’와 ‘보체(Voce)’의 합성어로 ‘빛과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루보체(Luboce)’

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아름다운 하모니로 희망을 전하고자 결성된 합창단으로, 그동안 병원 로비음악회를 비롯해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한 다양한 무대로 음악사랑을 펼쳐왔다.

루보체 레이디스 싱어즈는 앞으로도 음악적 완성도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2019 부산음악축제 III  
실내악앙상블의 밤**

**일 시**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의**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사)부산음악협회가 매년 마련하는 부산음악축제 세 번째 무대 ‘실내악앙상블의 밤’.

가장 순수음악인 실내악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무지카비바, GOOD 앙상블, 부산나눔플루트, JM앙상블, 부산현악4

중주, 최희연 앙상블, 트리오 하젠 등 부산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앙상블 7개팀이 출연,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앙상블의 향연을 펼친다.

**2019 부산음악축제 IV  
오페라 갈라콘서트 ‘사랑의 묘약’**

**일 시**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사)부산음악협회가 매년 마련하는 부산음악축제 네 번째 무대, 오페라 갈라콘서트 ‘사랑의 묘약’.

2022년 완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무대는 지휘자 정두환이 지휘하는 정팔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 연극배우 박찬영의 해설, 부산지역 성악가 22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도니제티의 희극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아리아를 들려준다.

- 예술감독/양승업
- 소프라노/김심희, 김혜정, 박나래, 양근화, 이지은, 장은영, 정혜리
- 테너/김기형, 김준연, 문한솔, 임성규, 장지현, 장진규, 조윤희
- 바리톤/심정보, 안세범, 장진웅, 채범석
- 베이스/권영기, 박상진, 박순기, 양종근
- 피아노/오병강

**연세대학교 심포닉 윈드오케스트라  
부산 초청공연**

**일 시**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5천원, S석 3만3천원, A석 2만2천원 (학생 50% 할인)  
**문의** 유편예기획 010-9025-2012



올해로 개교 134주년을 맞은 연세대학교 심포닉 윈드오케스트라 부산 초청공연.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 시절인 1917년, 10인조 실내악단으로 첫발을 내딛은 후 연희전문학교 취주악단을 거쳐 연희전문

학교 관현악단으로 그 맥을 이어온 연세대학교 심포닉 윈드오케스트라는 현재 관현악과 이철웅 교수의 지도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 기획 연주회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최고의 앙상블을 자랑하며 관객계를 주도해오고 있다.

- 지휘/이철웅
- 클라리넷/정세운
- 트롬본/제레미 윌슨

제12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일 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513-4306



합창음악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정서를 함양하고 나아가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을 위해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매년 마련하는 제12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지난 2008년 제1회 대회를 가진 후 올해로 12회를 맞는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는 전국 중·고교 합창단 20여팀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이 본선 경연을 펼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대상 1개팀을 비롯해 금상 1개팀, 은상 1개팀, 동상 2개팀을 선정, 시상한다. '파라미타'는 불교 보살의 수행덕목인 바라밀다(波羅蜜多)의 인도식 표기(범어)로 '어둠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

제24회 부산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하나 된 노래(One Song)

일 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교사합창단 010-3170-5817



지난 1996년 합창을 사랑하는 초·중등 교사로 결성된 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교사를 위한 워크숍, 학생을 위한 음악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매주 화요일 연습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으로 아름다운 합창의 묘미를 선보일 이번 무대에서는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한국창작합창곡을 시작으로 현대합창곡, 스페인 예술합창, 그리고 올 한해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 '알라딘' 주제곡을 들려준다.

- 단장/김혜진 • 지휘/김강규

그레이스 챔버 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Sweet Sorrow

일 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그레이스 챔버 오케스트라 010-9321-2867, 010-4544-7049



올해 그레이스 챔버 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의 18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00년 11월 창단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순수한 음악적 열정과 끼를 선보여온 그레이스 챔버 오케스트라는 특히 고아원, 양노원, 병원 등 찾아가는 봉사 음악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음악회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음악사랑을 펼치고 있다.

- 지휘/다니엘S김 • 바이올린/이은옥 • 바순/장보영

턴 투워드 부산 참정용사 후원 유엔국제평화기원 음악회 영웅 환타지아

일 시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유엔PEC모임 611-1002



11월 11일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에 앞서 열리는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의 유엔국제평화기원 음악회 '영웅 환타지아'. '턴 투워드 부산'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전 세계인들이 한국 전쟁 참전 유엔군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과 추모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 예술총감독/조희주(부산대학교 명예교수)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피아노/최민경 • 테너/김지호
• 트럼펫/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의 명작연극 NT라이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일 시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영국의 국립극장 내셔널 시어터에서 상연되는 연극의 공연실황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NT 라이브' 두 번째 무대.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 연극의 거장 테네시 윌리엄스의 풀리처상 수상작을,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무대로 호평 받는 연극·오페라 연출가 베네딕트 앤드류스가 연출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드라마 '엑스파일'의 '스컬리' 역으로 유명한 배우 질리언 앤더슨이 몰락한 명문가의 딸 '블랑슈' 역을 맡아, 잔인한 현실과 도피적 환상의 세계를 오가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연기로 생애 최고의 열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 평화를 노래하다 턴 투워드 부산 2019 평화물결

일 시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공연 당일 오후 6시부터 선착순 좌석권 배부)
문 의 부산일보사 051)461-4437



11월 11일 열리는 '턴 투워드 부산'을 기념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턴 투워드 부산 2019 평화물결'. '턴 투워드 부산'은 11월 11일 오전 11시, 전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 전쟁 중 전사한 참전용사를 추모하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행사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같은 시간에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KNN아나운서 정희정의 사회로 가수 변진섭, 소프라노 이지은, 바리톤 안세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53보병사단 군악대가 출연, 참정용사를 추모하는 특별한 무대를 갖는다.

**춤사람 기획공연 화류산방**

**일 시**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춤과사람 010-8912-4881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일무 이수자이자 부여충남국악단 상임안무자로 있는 서지민, 전라북도무형문화재 호남살풀이춤, 호남산조춤 이수자로 있는 김명신,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 이수자인 임미례, (사)벽파춤연구회 회장이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상임안무자인 홍지영,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도살풀이춤 보존회장이자 버구춤 보존회장인 윤종옥, (사)벽파춤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홍성미, 동래한량춤보존회 회원이자 인천시 지정무형문화재10-가호 밤패와 작범무 이수자로 있는 지영숙,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 이수자 김갑용 등 8명의 춤꾼이 펼치는 전통춤의 향연.

**독일가곡연구회 제55회 정기연주회 인생은 아름다워**

**일 시**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독일가곡연구회 010-9114-1733



지난 1987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에서 유학한 음악가들로 결성된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부채로 우리들의 열정과 꿈, 그리고 사랑 등 삶의 이야기를 유명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 통해 들려준다.
- 소프라노/윤선기, 강소영, 김현주, 양근화, 정혜민
  - 메조소프라노/양송미 ● 테너/조윤환
  - 바리톤/지광윤, 최강지, 이석영
  - 클라리넷/박소미, 김경미, 박필은
  - 배우/권현진, 양은미 ● 대본, 연출/이창원

**BCMS 초청콘서트 가을밤의 세레나데**

**일 시**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부산문화 1600-1803



부산의 실내악 발전과 클래식계의 대중화를 위해 결성된 BCMS (Busan Classical Music Society) 앙상블 초청무대. 동아대학교 교수이자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을 예술감독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유리, 비올리스트 김은진, 김민경, 첼리스트 이일세, 정지은, 피아니스트 김정권 등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BCMS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 바이올린/임재홍(음악감독), 김유리
- 비올라/김은진(대표), 김민경
- 첼로/이일세, 정지은 ● 피아노/김정권
- 스페셜 게스트/바이올리니스트 우소라, 서영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with 임동혁**

**일 시**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12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이 시대 가장 뛰어난 첼리스트에서 최고의 여성 지휘자로 거듭난 장한나와 그가 상임지휘자 및 예술감독으로 있는 노르웨이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세계 3대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입상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특히 한번도 같은 무대에 선 적이 없었던 장한나와 임동혁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노르웨이 대표 작곡가인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1번'과 '피아노 협주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 '비창'을 감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 1세대 피아니스트 한동일 초청 힐링콘서트 '귀향'**

**일 시**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부산문화 1600-1803



대한민국 1세대 피아니스트로 대한민국 피아노계의 발전과 후학양성에 큰 힘을 실어준 피아니스트 한동일 초청무대. 1954년 한국전쟁 종전 직후 미국으로 유학, 줄리어드 음대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한 한동일은 1965년 제24회 레벤트리트 국제콩쿠르에서 우승, 한국인 최초의 국제콩쿠르 우승자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한동일은 그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 특별출연/피아니스트 제갈삼, 이정원

**2019년 효원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푸른 바다의 기억**

**일 시**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효원국악관현악단 010-7149-9499



지난 2000년 3월 젊은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국악관현악단으로 자리매김한 효원국악관현악단 2019년 정기연주회.

그동안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실험적이고 대중적인 연주를 선보여온 효원국악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바다'를 주제로 한 5곡의 국악창작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안태상/일출의 바다  
 정동희/월광  
 백규진/가을의 기억(부제:푸른바다의 기억) 등
- 지휘/백규진



### 2019 여성문화회관 예술의 밤

**일 시**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320-8341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관장 이정희)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이 마련하는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2019 '예술의 밤'.

지난 1998년부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재능을 바탕으로 한국무용, 민요판소리, 풍물, 가야금, 서예, 기타연주 등 총 6개팀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및 찾아가는 공연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무용, 민요판소리, 풍물, 가야금, 기타연주 등 5개 예술봉사단이 출연, 장르를 넘나드는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3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일 시**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7



부산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85년 첫 출발한 부산청소년합창제 2019년 무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지역 청소년 합창단들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순수 합창음악의 성격을 살려 전통 클래식과 동요, 가곡 등의 곡들을 선별, 순수 음악의 하모니와 아름다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며, 연합합창을 통해 청소년들간의 화합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출연단체**  
 CTS부산방송 소년소녀합창단

### 아첸투스 챔버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아첸투스 챔버 오케스트라 010-8559-0415



부산 지역예술의 발전과 실내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결성된 아첸투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아첸투스 챔버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한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2016년과 2017년 사랑나눔음악회, 2019년 모차르트 '레퀴엠', 고리원자력 행복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 지휘/임재우
- 예술감독/이재성
- 악장/안은탁
- 협연/강희숙(리코더)
- 특별출연/사랑나눔합창단(단장 한영자)

KBS소년소녀합창단  
 금정소피아어  
 기장리틀싱어즈 소년소녀합창단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남문초등학교 합창단  
 부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부산진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  
 북구 소년소녀합창단  
 수영구 소년소녀합창단  
 연지 꿈나무합창단  
 영도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예문 학생합창단  
 부산 용수초 어린이합창단  
 장서초등학교 중창부  
 정관 소년소녀합창단  
 화잠나래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시아와 친구들-트레저헌터즈'

**일 시**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아시아 각 지역을 상징하는 유쾌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동물친구들의 모험을 통해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어린이뮤지컬 '시아와 친구들-트레저헌터즈'.

국내 최대의 어린이 문화시설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 어린이 문화원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어린이 시아(Sia)와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상징하는 동물 친구들인 고니(Gonee, 용), 페리(Paree, 앵무새), 칼리(Kalee, 자갈), 엘리(Elee, 코끼리), 키니(Keynee, 원숭이)로 구성되어 있다.

- 연출, 작/김영원
- 작곡/임재훈, 러시아인 룰렛

### 제7회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부부음악회 DUO CONCERT

**일 시**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부부성악가인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가 함께하는 부부음악회 일곱 번째 무대.

신정순은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성악과, 이태리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를 졸업하고 서울 바로크, 현대가곡연구회, M&M 성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바토리 외래교수로 있다.

고봉수는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이태리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 로마 A. I. ART 아카데미 지휘과를 졸업하고 졸업하고 M&M 성악연구회 회장, 해운대 노노합창단, 장산 청춘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 한화 팝&클래식 여행: 뮤지컬 인 라이프

**일 시**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의** 한화그룹 02-566-8373



한화그룹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한화 팝&클래식 여행’ 2019년 무대. ‘한화 팝&클래식 여행’은 한화그룹의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년 지역 도시를 순회하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품격높은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뮤지컬 인 마이 라이프’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김상훈이 이끄는 바쁘라 콘서트 오케스트라, 이자은밴드 연주로 최근 TV드라마,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배우 김호영, 더 뮤즈 뮤지컬 콘서트팀이 출연, 음악으로 가득한 인생 스토리와 무대 뒷이야기를 관객들과 함께 나눈다.

## 연(緣) 무용단 정기공연 무인향(舞人香)

**일 시**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연무용단 010-6328-6362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전승하기 위해 모인 아마추어무용단인 ‘연 무용단’의 두 번째 정기공연. 인천시립무용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 한국무용강사, 연 무용단 단장, 춤다래 무용단 단장으로 있는 최준옥의 제자들로 구성된 연 무용단은 부산무용제 부대행사, 생활무용문화예술제 시민대동춤, 부산국제무용제 부대행사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번 정기공연에서는 댄스드라마 단춤 컴퍼니 대표 최준영의 사회로 허튼춤과 입춤, 흥무, 화향(花香), 태평무, 산조춤, 장구춤, 진도북춤 등 다양한 우리 춤사위를 선보인다.

## 제13회 부산문화예술큰잔치

**일 시**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554-0159

문화융성으로 발전하는 부산의 생활문화 터전을 마련하고자 부산시 15개 구·군 문화원의 문화교실 수강생이 1년간 갈고 닦은 배움을 한 자리에서 발표하는 부산문화예술큰잔치.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강서문화원, 연제문화원, 기장문화원, 낙동문화원, 동래문화원, 사상문화원, 금정문화원, 부산진문화원, 남구문화원, 수영문화원, 동구문화원, 서구문화원, 영도문화원, 사하문화원, 해운대문화원 등 각 문화원의 문화교실 수강생 및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및 시상, 각 문화원 수강생들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 2019 부산불교합창제 여덟 송이 노래 꽃 피었네

**일 시**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867-0501



지난 2000년 3월, 찬불음악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부산에서 활동 중이던 사찰 합창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결성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정임숙)의 2019년 무대. 그동안 사찰 및 지역에서 봉사활동과 더불어 찬불음악 보급에 앞장서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지난 2002년 독일 세계합창올림픽, 2006년 창원세계여성합창제 등 국내외의 수많은 합창제에 참가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여덟 송이 노래 꽃 피었네’라는 부제로 소속 합창단 중 8개 합창단이 출연, 찬불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부산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연주회 세계를 품다

**일 시**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선정을 위한 부산시립합창단 제177회 정기연주회 ‘세계를 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경연 마지막 주자인 루마니아 국립 올레그 다노브스키 콘스탄짜 오페라합창단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아드리안 스타나게가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오는 11월 25일부터 서울간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세계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로, 세계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세계를 품다’라는 부제로 평화음악회로 꾸며진다.

## 최지은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의** 최지은 010-2333-2544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회장이자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최지은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피바디 음대에서 석사와 연주자과정을 이수한 뒤 텍사스 주립대(Ausri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지은 일찍이 국내 유수 콩쿠르에서 1등 및 상위 입상하여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수차례 독주회 및 다수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 프로그램

슈만/아베코 변주곡 작품 1  
슈만/환상소곡집 작품 12  
브람스/헨델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작품 24

부산문화회관

2019 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5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Best of Best

일 시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17년 첫 선을 보인 후 시즌 다섯 번째 무대를 거치며 (재)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2019년 마지막 무대. 마티네 콘서트는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으로, 파격적인 기획과 도전으로 수많은 매스컴의 찬사를 받은 현악4중주단 '파르렛엑스'의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의 해설과 파르렛엑스의 연주, 소프라노 이은희, 테너 이동명, 바리톤 장광석의 협연으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아리아 베스트로 관객들과 만나다.

한국창작합창 21 2019년 제13회
정기 작품 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 IX

일 시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총무이사 권태우 010-7600-4514



합창음악의 연구와 창작, 발표를 통해 대중과 함께하는 창작합창 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창작합창 21의 13 번째 정기 작품 발표회. 최삼화, 이옥영, 김은진, 임지연, 김종태, 임록, 김수진, 조혜선, 진소영, 정혜란, 권태우, 황장수, 김종욱, 강영진, 홍윤경 등 작곡가 15인의 창작 합창곡 및 가곡을 지휘자 임재우가 지휘하는 사랑나눔합창단, 소프라노 강소영, 테너 방주원의 연주로 들려준다.
• 작곡/최삼화, 이옥영, 김은진, 임지연, 김종태, 임록, 김수진, 조혜선, 진소영, 정혜란, 권태우, 황장수, 김종욱, 강영진, 홍윤경

테너 도각 독창회

일 시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의 한·중음악교류협회 010-4136-1410



세계 유명 성악가인 그레이스 범브리로부터 '가장 잠재력을 지닌 청년 성악가'로 호평받은 중국의 테너 도각 리사이틀. 도각은 타이베이 국립 콘서트홀에서 처음으로 공연한 중국 아티스트로, 그동안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한국, 일본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왔으며 오스트리아 제15차 브람스 국제음악 콘테스트 우수상, 제4차 독일 예술가곡 콘테스트에서 1 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도각은 현재 중국 무한음악학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볼프의 가곡을 비롯한 예술가곡과 한국, 중국가곡,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6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X
아홉, 열, 열하나

일 시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해온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고 차세대 최고 오르가니스트로 평가받는 신동일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생상의 교향곡 제3번 '오르간'을 첫 곡으로 현존하는 스웨덴 최고의 작곡가인 안데르스 힐보리의 '열한 개의 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들려준다.

KNN과 강림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제6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일 시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KNN 850-9568, 강림문화재단 637-5678



지휘자 금난새가 지휘하는 KNN방송교향악단과 동양의 미성(美聲)으로 평가받는 테너 허영훈, 떠오르는 신성 기타리스트 서유덕, 그리고 색소포니스트 김태현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이 어려우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

로시니/세빌리아의 이발사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비제/오페라 '카르멘' 서곡
비발디/기타협주곡
피아졸라/리베르 탱고 등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 II
춤-날아오르다

일 시 11월 24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체육무용과 850-3261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체육무용과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무대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 두 번째 무대. '춤-날아오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근래 보기드문 사제지간이 함께하는 무대로, 열정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연출, 예술감독/김해성(부산여자대학교 아동체육무용과 학과장)
안무, 출연/김해성, 김옥련, 김한동, 김선영, 서덕규, 김민지, 이연주, 김지현, 김유진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한·아세안 세계 정상회의 축하공연

**일 시**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0



11월 25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세계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한·아세안 세계 정상회의'는 한국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

안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과의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정상회의 첫날인 11월 25일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김정수가 지휘하고 소리꾼 이춘희, 강효주, 소프라노 박은주, 부산시립합창단의 협연으로 우리 전통의 멋과 신명이 넘치는 무대를 펼친다.

### 오페라단 나눔 '라보엠'

**일 시**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VIP 12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오페라단 나눔 611-0132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 대중화를 위해 창단한 오페라단 나눔의 오페라 '라보엠'.

지난해 12월 창단공연 '오페라 콘서트'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오페라단 나눔은 이번 무대에서 푸치니가 사랑한 가난한 연인들의 사랑과 이별이야기 '라보엠'을 무대에 올린다.

- 단장/최흥근 ● 연출/기민정
- 지휘, 예술감독/이철성
- 합창지휘/김정아, 한우인
- 출연/왕기현, 장지현, 이지은, 이태영, 유용준, 박순기, 강태영
- 연주/오케스트라 음
- 합창/센텀오페라 합창단, 햇살나무 중창단

### 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 南風-South Breeze

**일 시** 11월 28-29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부산시립무용단 수석 안무사 선정을 위한 부산시립무용단 제80회 정기공연 '南風-South Breeze'.

그 첫 번째 경연 주인공 공인 이정윤댄스시어터 예술감독 이정윤은 지난 2002년 국립무용단 입단 첫 해 주역무

용수로 데뷔한 후 2014년 퇴단하기까지 수석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만 타이베이 국립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은 이정윤의 연출, 안무로 한국춤의 호흡기법과 움직임의 다양한 예술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형상화한 창작춤 '남풍-South Breeze'를 선보인다.

### 예그리나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예그리나합창단 박종호 010-3841-7402



합창을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혼성4부 실버합창단인 예그리나합창단의 여섯 번째 정기연주회.

예그리나합창단은 2014년부터 4년간 전국환경노래경연대회에 참가, 은상 및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8년과 2019년 경상남도지사배 전국항노화합창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 찬조출연/필로스 앙상블
- 협연/부산은행 실내오케스트라

### 2019 강태홍의 소리

**일 시**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사)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 010-3130-1353



부산시무형문화재 제 8호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를 전승, 보존하고 있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의 2019년 정기발표회.

부산대학교 배양현 교수의 사회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독주, 이중주, 합주를 비롯해 창작곡과 판소리, 동래줄풍류 등을 들려준다.

- 사회/배양현 ● 판소리/김일구
- 대금/박환영, 최재호 ● 해금/방병원
- 가야금/최문진 ● 거문고/권은영, 이대하
- 피리/진윤경 ● 장구/송강수 ● 교수/조용안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일 시**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지난 5월에 첫 선을 보여 호평을 받았던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두 번째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다양한 매력의 악기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 피아노&목관 5중주/조성철(플루트), 류재한(오보에), 장재혁(클라리넷), 장정호(바순), 최영희(호른), 이은정(피아노)
- 트럼펫&트롬본&피아노/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정선화(트롬본), 이은정(피아노)
- 타악앙상블/나종용, 김지연, 박용갑, 박찬식, 배지훈

### 어울림국악연구회 창립 33주년 기념 제25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어울림국악연구회 467-7975, 442-2688



1986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실시한 부산시민을 위한 단소무로강습회 수료생으로 출발한 어울림국악연구회의 창립 33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현재 정악(전통 궁중음악)을 위주로 각 파트 레슨과 합주연습을 가져오고 있는 어울림국악연구회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가족음악회를 비롯해 단소강습을 통해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 특별출연/채조병(대금, 국립국악원 지도위원)
- 우정출연/일본 도쿠시마 방악집단

### 김미성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아름다운 음색과 더불어 음악적 해석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미성 귀국 독주회.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학사과정과 데트몰트 국립음대 석사과정, 마인츠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

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김미성은 독일, 네덜란드에서의 초청 독주회와 마스터클래스에 참가하여 전문연주자로서 무대경험을 쌓아왔다.

귀국 후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회원,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회원, 독주회 회원으로 무대에 서는 한편, 독일 Dr. Carl Dörken Stiftung 연주자(장학생)로 유럽에서도 활동중인 김미성은 이번 무대에서 스크랴빈, 베토벤, 드뷔시의 작품을 들려준다.

### 한얼악회 제13회 정기연주회 휘이 휘이

**일 시** 11월 3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한얼악회 462-017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 산조 이수자로 있는 대금주자 채수만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1990년 결성된 국악동호회 '한얼악회'의 13번째 정기연주회.

창단 이후 우리 음악의 전승, 보급에 힘써온 한얼악회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외에도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상설무대, 오사카 국제민족음악제, 창원 성산아트홀 개막연주 등 각종 무대에서 우리 음악 사랑을 펼치고 있다.

- 지도/채수만, 오은영
- 대금/장태문
- 반주/백영현, 정동주
- 신디/백신아
- 해설/이태재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라 트라비아타&라 보엠 운명적 사랑

**일 시** 12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2년 완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라 트라비아타&라 보엠 운명적 사랑'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이끄는 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사회, 소프라노 김성은, 박현주, 왕기현, 테너 김총희, 허동권, 바리톤 박대용, 최현욱이 출연, 운명적 사랑을 노래한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무대 데뷔 30주년 기념 백혜선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2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화려한 테크닉과 섬세함, 그리고 폭발적인 열정의 피아니스트 백혜선 독주회.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은 백혜선은 그가 지난 해부터 진행해온 '2018-2020 시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의 일환으로 데뷔 무대에서 연주했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28번을 비롯해 소나타 제31번, 제32번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백혜선은 부산 클래식계의 대모(代母)로 지난해 12월 타계한 부산아트메니지먼트故 이명아 대표 1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한다.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제6회 부산직장인밴드경연대회

**일 시**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재)부산문화회관이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과 직장인의 밴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마련하고 있는 부산 직장인밴드경연대회.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예심을 통과한 본선 15개 팀이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치며, 경연무대가 끝난 뒤에는 작년 대상 수상팀인 '갱기스트(Gangkiat)'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객의 참여접수를 책정,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의 대상팀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함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음악창작소의 후원으로 음원제작의 기회를 갖게 된다.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11월 스페이스 음 음악회

**일 시** 매주 금요일 오후 8:00, 14일 목요일 오후 8:00 스페이스 음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스페이스 음 557-3369

**1일(제367회) VITO Quartet**

경북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 Susung philharmonic Society Orchestra 단원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오세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부산신포니에타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채지원,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김미선, 대구시청합창단 컬러풀코러스 반주자, 파스토랄 싱어즈 반주자로 있는 첼리스트 성민경으로 구성된 VITO Quartet의 무대.

**8일(제368회) (사)나빌레라 예술기획 열 네번째 이야기사랑방 '풍류동행'**

피리주자 박태영, 대금주자 김동현, 드럼주자 유동일, 베이스기타리스트 조영식, 신디사이저 연주자 권유지가 들려주는 퓨전무대 '풍류동행'.

**14일 신승민 플루트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목관부문 최초로 1년



조기졸업한 후 예술전문사 2년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수석, 한국플루트협회 이사, 아라온목관오중주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신승민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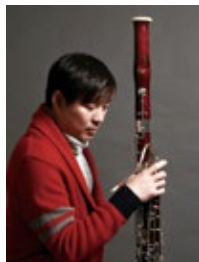
● 기타/김병로

● 피아노/신나래

**15일(제369회) 미스김의 프로포즈 여덟 번째 '밥짓는 기타리스트'**

**22일(제370회) 피요트르밴드**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재즈 드러머 피요트르 파블락과 재즈 피아니스트 민주신, 콘트라베이스스트 박주민으로 구성된 피요트르밴드의 무대.



**29일(제371회)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바순'**

음악유목민 정두환과 바순니스트 전만익, 김재현, 오채은, 장원영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

표제음악과 함께하는 제3회 서영교 색소폰 독주회

**일 시** 11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서영교 010-6886-5896



울산대학교와 프랑스 안시 시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서영교 독주회. 안시관현악단에서 2년간 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서영교는 귀국 후 독주회

및 협연연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구성의 솔로 및 앙상블 연주로 클래식 색소폰의 저변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각각의 제목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로 음악을 쉽게 상상해볼 수 있는 표제음악들로 기획, 쉽게 접할 수 없는 클래식 색소폰 음악의 즐거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 해설/정두환

재즈파크빅밴드 WITH JK김동욱, 웅산

**일 시** 11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1층 3만원, 2층 2만원(인터파크티켓 예매시 30% 할인)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한국의 대표적인 빅밴드로 자리매김한 재즈파크빅밴드와 깊이 있는 소울 창법으로 여심을 저격하는 JK김동욱, 중저음의 능숙한 보이스로 객석을 압도하는 웅산이 함께하는 감동 있는 재즈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기존의 재즈 명곡들과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명화속의 음악, 그리고 대중가요 등 다양한 음악을 재즈파크빅밴드만의 웅장하면서도 깊은 울림의 멜로디를 통해 현대인들의 치진 마음을 달래준다.

제18회 대학교향악축제

**일 시** 11월 4일(월)-6일(수)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부산의 차세대 음악을 이끌어갈 젊은 음악가들의 향연 '제18회 대학교향악축제'.

올해 무대에서는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등 부산지역 3개 대학교 오케스트라가 참가한다.

**일정**

4일(월) 경성대학교/5일(화) 동아대학교  
 6일(수) 동의대학교

제4회 바리톤 윤풍원 독창회 내 영혼의 울림

**일 시** 11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윤풍원 010-5239-2749



스칼라 뮤직스튜디오 대표, 느티나무합창단, 감만교회 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 이태리음악연구회, 부산성악가협회, 효원성악회, 가보뚝 선교오페라단, 세레니타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리톤 윤풍원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이태리 밀라노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밀라노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로마 'A.I.M.A' 합창지휘과정을 졸업한 윤풍원은 이태리 국제콩쿠르 'Alice bel Colle' 3위, 'Terre dei Fieschi' 특별상, 'Brescia' 입상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기타공연장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3



6일(제705회) 나예지 피아노 독주회
풍부한 표현력과 깊은 감성으로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나예지 독주회. Trio Hanari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나예지는 이번 무대에서 헨델과 부조니, 쇼팽의 곡을 들려준다.

13일(제706회) 유주영 플루트 독주회 '세계 각국의 음악'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단원이자 플루트 콰르텟 '클랑' 단원으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 유주영 독주회. 유주영은 이번 무대에서 플루트 독주 외에도 피아

제6회 을숙도 대학가곡제

일 시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부산지역의 7개 음악대학을 대표하는 성악과 학생들에게 음악적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 전문성악가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하는 2019 을숙도 대학가곡제.

노와 기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피아노/성민주 클래식기타/김경태



20일(제707회) 피아노 전문연주단체 스테이 플러스 '편곡에 빠지다 -Bach부터 BTS까지'
피아니스트 구화진, 김은정, 노은주, 박재영, 이선화, 장효진, 정꽃님으로 구성된 피아노 전문연주단체 '스테이플러스(STAY+)'의 무대.

'편곡에 빠지다-Bach부터 BTS까지'라는 부제로 바흐에서 방탄소년단의 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별출연/소프라노 황혜진

27일(제708회) 양상블 Powell Flute 'Club 19.5k' 콘서트
정미라, 김성석, 김혜미, 임한나, 차민경, 유혜성, 오신정 등 파워웰(Powell)의 Gold 19.5k 모델을 사용하는 플루티스트들의 모임인 'Club 19.5k'의 무대.
특별출연/피아니스트 이은정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VI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Grand Sonata'

일 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격렬하면서도 서정적인 음악성으로 매 공연마다 감동을 주는 피아니스트 박정희가 마련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여섯 번째 무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보스턴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석사 학위(MM)와 Graduate Diploma, 론지 음악원에서 Artist Diploma, 보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정희는 세계 우수 공연장에서의 독주회와 협연, 실내악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박정희는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4번에서 제7번까지 그의 초기작품을 들려준다.

최민경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최민경 010-9496-268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트로빙엔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최고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폭넓은 연주 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최민경 독주회. 섬세한 감성과 다양한 음색으로 청중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는 최민경은 현재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고신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작곡그룹 An-ti Stimmung 연주이사, 은향교회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4: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초대(좌석권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 입장)
문의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010-2562-6561



지난 2000년 창단 후 리코더 음악의 교육적, 예술적 가치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단장 양경자)의 20번째 정기연주회. 'Recorder Fiesta'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출신의 선배단원들이 후배들과 함께 연주하는 뜻깊은 무대와 함께 부산리코더양상블과의 합동무대로 음악으로 교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지휘/강희숙

### 2019 영화의전당 11월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시즌2 엔니오 모리꼬네를 다시 읽다

**일 시**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영화음악감독 푸디토리움과 함께하는 영화와 영화음악 이야기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두 번째 시즌.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김정범)이 진행하는 시네마 브런치 2019년 마지막 무대로,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미션’, ‘시네마 천국’, ‘러브 어페어’, ‘말레나’ 등의 영화음악을 작곡하면서 영화음악을 예술로 승화시킨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진행/푸디토리움 김정범
- 연주/푸디토리움, IPB 현악앙상블

### BS오퍼스앙상블 제15회 정기연주회 러시아의 회상

**일 시**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BS오퍼스앙상블 010-3592-5697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경남지역 등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BS오퍼스앙상블의 무대. BS오퍼스앙상블은 지난 2007년 창단된 후 피아노 듀오, 트리오, 현악4중주, 현악5중주, 챔버오케스트라 편성과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실내악의 저변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로코피예프, 라흐마니노프, 글린카, 차이콥스키, 쇼스타코비치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곡으로 꾸며진다.

### 조무중 바이올린 리사이틀 時代를 커다

**일 시**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음악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피나는 연습으로 프레징의 자유로움을 구사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리사이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를 거친 후 예술사, 전문사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오케스트라 솔로 최고연주자과정, 에센포크방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 솔리스트, 실내악,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 두루 전문성을 갖춘 조무중은 이번 무대에서 헨델, 베토벤, 브람스, 비에냐프스키 등 바로크, 고전, 낭만,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작품을 그만의 다양한 테크닉으로 들려준다.

### 2019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010-5198-0074



부산 유일의 기타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의 17번째 정기연주회. 솔로, 2중주, 4중주 연주가 펼쳐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지휘자 김현아의 지휘, 기타리스트 김경태의 협연으로 기타오케스트라의 특성에 맞게 편곡된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 전 악장을 국내 최초로 연주한다.

- 솔로/고채운 ● 듀오/김경윤, 이미영
- 사중주/서정빈, 김현지, 고정현, 이선주

### 제9회 황남용 클라리넷 독주회

**일 시**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황남용 010-8007-8087



현재 부산현대음악앙상블 단원, 아르고 윈드오케스트라 악장, 플레이어즈 벅(Players Becs)멤버, 예술법인 T.I.F 이사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라리넷리스트 황남용 독주회. 영남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뷔페탈음대(K.A),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를 졸업한 황남용은 유학시절 음악적 역량을 넓히기 위해 Karl Leister, Nobert Kaiser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했다.

- 피아노/김진희
- 첼로/곽대희

### 제71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국악인 남상일과 함께하는 국향만리

**일 시**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깊어가는 가을밤, 국악의 흥취로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제71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객원지휘자 홍희철이 지휘하는 부산국악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화려한 무대매너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사랑받는 국악인 남상일이 출연, 신명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 소프라노/김시하 ● 테너/조윤환
- 바이올린/조혜운 ● 트럼펫/최수용
- 풍물/경북도립국악관현악단 연희팀

기타공연장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13회 정기연주회 가을의 판타지

일 시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청소년 50% 할인)
문의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010-7545-8176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정기연주회.

2008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찾아가는 음악회, 클래식 음악 연구 등 클래식의 전통성과 대중화를 위해 폭넓은 레퍼토리와 탄탄한 연주력으로 관객과 소통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의 판타지'라는 부제로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지는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일파가야금합주단 제22회 정기연주회 현의 축제 아홉 번째 '가야금·양금\_弄絃同音'

일 시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초대
문의 일파가야금합주단 582-9119



지난 1996년 4월 창단된 후 부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레파토리 개발과 이해하기 쉬운 연주로 대중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일파가야금합주단의 22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가야금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통 음악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창작곡 발표 및 새로운 연주법의 개발, 악기 개량사업 등을 가져온 일파가야금합주단은 지금까지 21차례 정기연주회와 지방 순회연주, 해외 초청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해설/장명화(동아세아 민족음악 교류회장)
● 특별출연/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정다희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정다희 010-6379-9333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보스턴대학교 석사과정, 미시간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앙상블 The Blossom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 독주회.

미국 유학중에도 MSU Symphony Orchestra 악장, Lansing Symphony Orchestra, Alma Symphony Orchestra 객원 수석단원으로서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정다희는 현재 창원대학교, 체코 브르노 콘서바토리, 부산예술중·고등학교 외래교수, 양산청소년오케스트라 지도강사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김영실

2019 송년재즈페스티벌 워렌 힐 2019 대한공연

일 시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60 www.dureraum.org



케니 지(Kenny G), 데이브 코즈(Dave Koz)와 더불어 세계 3대 색소폰 팝 아티스트로 알려진 재즈 색소포니스트 워렌 힐 대한공연.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워렌 힐은 남성적 터프함과 자유분방함을 갖춘 뮤지션으로 자유분방한 연주와 고음에서 발산되는 엄청난 파워와 스킬을 보여주기로 유명하다.

- 연주/워렌 힐(색소폰, 보컬), 제이고어(기타), 데이빗 후퍼(드럼), 벤 화이트(베이스), 그렉 매닝(키보드)

이현우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를 수료한 후 도독, 칼스루에 국립음대에서 학사,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석사, 그리고 뮌헨 국립음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 독주회.

이현우는 리움챔버콩쿠르 1위 등 다수 국내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음악춘추사 주최 젊은 연주자 뮤직페스티벌 초청연주, 블라디보스톡 방송교향악단 협연, 국립 슬로바키아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현우는 현재 실내악에도 관심이 많아 자브뤼켄 국립음대 실내악 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한울타리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한울타리 오케스트라 010-3876-3432



금정구가 2013년 10월 개설한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창단된 한울타리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음악을 사랑하는 3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한울타리 오케스트라는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와 연계, 매년 정기연주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음악사랑을 펼치고 있다.

- 지휘/홍성택 ● 특별출연/김종천
● 소프라노/김소연



2019 부산거문고악회 특별기획콘서트 시리즈  
거문고 일곱마당 II  
권은영 독주회 '주제와 변주'

**일 시**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거문고악회 010-4202-3003



국악기인 거문고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부산거문고악회가 마련한 2019 특별기획콘서트시리즈 '거문고 일곱마당' 두 번째 무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

학과 교수로 있는 권은영의 연주로 작곡가 정수란, 이은경의 창작곡과 타클라마칸사막의 송고함을 거문고 타악 인성의 즉흥연주로 표현한 '타클라마칸'을 들려준다.

연극 | Play

연극 날라리 마형사

**일 시** 6월 6일(목)-12월 1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2:30, 5:00, 7: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세상에서 제일 예리한 형사의 코믹 잠입수사극 '날라리 마형사'. 좌천될 위기에 놓인 마형사는 연출가 맹가진 살인사건에 의문을 가지고 '극단 연병임(연기를 병적으로 사랑하는 모임)'에 막내단원으로 잠입에 성공한다.

마형사는 허당미를 발산하며 연출가 맹가진과 여러 사건으로 얽히고 설친 단원들을 수사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날라리 마형사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  
제11회 짜장콘서트

**일 시**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7:00(오후 6시부터 짜장면 먹기) 음악풍경 연습실  
**입장료** 참석비 1만원(사전 예약)  
**문의** 음악풍경 987-5005



부산에서 비약적인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들을 초청, 그들의 삶과 음악을 함께 나누는 소박한 하우스콘서트로,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이자 코리아첼버오케스트라 악장, 경남솔로이스츠 리더, 부산 클래식 뮤직소사이어티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소미가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극단 새벽 연희극 히로시마 메시지

**일 시** 10월 24일(목)-12월 14일(토)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10월 30일, 11월 7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8:00 공연) 효로민락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극단 새벽 245-5919



'삶의 연극화, 역사의 연극화'를 모토로 독립 예술(인디아트)운동과 소극장운동을 이어 온 극단 새벽이 창단 35주년을 맞아 마련한 레퍼토리 시리즈 두 번째 무대 '히로시마 메시지'.

홍가이의 '히바쿠샤(피폭자)'를 원작으로 한 '히로시마 메시지'는 지난 1995년 극단 새벽이 해방 50주년을 맞아 초연한 작품으로, 한국인 피폭자인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을 통해 강제징용 피폭2세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다.

2019 이진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선착순 100명 초대)  
**문의** Konganmul 055-636-1736



거제시교향악단 악장, 부산로얄필하모니 수석, LIKE 라이크앙상블 리더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진 독주회.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신시네티 음대 및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이진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의 독주회를 비롯해 유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나루실내악의 밤(서울 나루아트센터), 플루티스트 뱃상 루카스와 함께하는 실내악 듀오연주, GM그룹 송년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피아노/안경은 ● 첼로/조경진

뮤지컬 맘마미아!

**일 시** 11월 1일(금)-1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6:30, 일요일 오후 2: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 드림씨어터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의** 예술기획 성우 1599-1980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ABBA)의 히트곡을 엮은 뮤지컬 '맘마미아!' 부산공연. 지난 1999년 런던에서 초연한 후 전 세계 50개 프로덕션에서 16개 언어로 공연된 '맘마미아!'는 아바(ABBA)의 음악에 모녀의 사랑, 친

구와의 우정,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담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캣츠'에 이어 한국 뮤지컬 사상 두 번째로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기타공연장

2019 부산가을연극페스티벌

일 시 11월 1일(금)-24일(일) 부산지역 소극장
문 의 부산소극장 연극협의회 010-9876-1951

부산광역시와 부산소극장연극협의회가 부산지역 소극장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는 2019 부산 가을연극페스티벌.



연극창작발전소 청춘나비 '엄마의 방' [개막작] 11월 1일(금)-1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화-수요일 공연없음) 청춘나비 소극장 평범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현실의 일상처럼 담담하게 그려낸 창작극 '엄마의 방'.

● 연출/전주협

NMD노마드 '타이피스트'

11월 2일(토)-9일(토)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레몬트리소극장

프로젝트팀 이틀 15TH IMPACT The Monster 2019: 그 속에 괴물이 산다

일 시 11월 14일-15일 목-금요일 오후 7:30, 16일 토요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전석 2만원(예매시 1만5천원)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부조리함과 인간의 폭력성을 특이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블랙코메디극 'The Monster 2019: 그 속에 괴물이 산다'. 한 가족이 있다. 막내가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 가족들은 들리지 않게 꾸민다. 몇 차례 반복되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자 이들은 청부살인업을 시작하게 된다. 어느 날, 말은 의뢰를 실패하면서 견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자 가족들은 막내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죽게 만드는데...

● 작, 연출/강태욱
● 출연/오정국, 엄준필, 김상호, 신원준, 김아람, 박준서, 차승현, 이재찬, 안예은

40년의 삶을 단 하루의 시간에 압축시켜 표현한 '타이피스트'는 시간 속에서 변해가는 인간의 꿈과 사랑, 욕망을 통해 삶의 의미에 관해 질문한다.

● 연출/이성섭



극단 이그라 '원맨쇼' 11월 7일(목)-16일(토)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5:00 열린아트홀 치매에 걸린 엄마를 위해 역할극을 하는 아들을 통해 가족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창작극 '원맨쇼'.

● 작/박장렬 ● 연출/최성우

교육극단 곶갯가루부대 '언더 스탠드'

11월 13일(수)-23일(토)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비를 피해 지하로 내려온 거리생활자들의 모습을 유머러스한 신체연기와 강렬한 양상블 연기로 선보이는 '언더 스탠드'.

● 작/문지완 ● 연출/안준영

극단 아센 '겨울에서 가을까지'

11월 15일(금)-23일(토)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3:00, 6:00(일요일 공연없음) 하늘바람소극장



겨울에서 시작된 두 남 녀가 다음 해 가을이 오 기까지 계절의 변화 속에서 펼쳐내는 삶과 사랑의 방정식을 통해 사랑의 본질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반추해보는 극단 아센의 '겨울에서 가을까지'.

● 연출/호민



프로젝트그림 배우다 '간' [폐막작] 11월 14일(수)-24일(일)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새롭게 각색한 작품.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으나 한순간에 몰락한 주인공 윤철은 상처가 가득한 그의 간을 먹어야만 용왕이 산다는 거북이의 말에 거북과 함께 용궁으로 떠나는데...

무용 | Dance

2019 현대무용단 자유 정기공연

일 시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현대무용단 자유 010-8541-3428



지난 1995년 창단 후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현대무용단 자유의 2019년 무대.

작품

너는 안전하다. You are safe(안무/안선희, 출연/안선희, 정다래, 황정은)
Direction C(안무/이승윤, 출연/조현배, 이언주, 이승윤, 이혜리, 이혜인, 금예은, 유승아, 최해인)

안네 프랑크

일 시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1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60



2017년 제14회 부산국제연극제, 2018년 평화를 위한 여성연극축제(콜롬비아 보고타), 2019년 보더라이트페스티벌(미국 클리블랜드)에 공식초청받아 화제가 된 비언어극 '안네 프랑크'.

지난 2014년 부산시립극단의 '안네의 일기'라는 제목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작품으로, 암울했던 나치 치하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안네 프랑크의 세상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 연출/주혜자
● 안무/이동원 ● 음악/이영재

행사 | Event

11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매주 월-화요일 오후 7:00,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7:00 시네바움

**입장료** 일반 1만5천원, 학생 1만원(1회 수강료)

**문의** 시네바움 010-2774-3455

**4일(월) 오후 7:00** 마음공부(7)

반야심경, 그 네 번째 이야기

- 강사/김명우(철학박사, 불교학자, 동아대 교양교육원 전임교수)

**5일(화) 오후 7:00** 재즈를 탐하다(3) '블루스'

- 강사/이기병(동덕여대 음악학과 교수)

**7일(목), 14일(목), 21일(목), 28일(목) 오전 10:00** 무료 아카데미 '논어, 깊게 읽기'

- 강사/윤산 김수정(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7일(목), 14일(목), 21일(목), 28일(목) 오후 7:00** 무료 아카데미

'공학자의 손자병법·경쟁의 원리와 원칙'

- 강사/박승섭(부경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11일(월) 오후 7:00** 영화의 바다에서 만난 문학(9)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실내악 이야기 III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지난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올해 5월 700회 특집음악회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5일(725회) Ludwig van Beethoven Chamber Music

12일(726회) Franz Peter Schubert Chamber Music

19일(727회) Franz Liszt Chamber Music

26일(728회) 이달의 책 읽기 '어른의 학교'(이윤기 저, 민음사)

아서 밀러의 시련\_영화, The Crucible

- 강사/홍옥숙(한국해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12일(화) 오후 7:00** 셰익스피어의 문제극 읽기 자에는 자로(1604):햄릿선언문(1601) ("I say we will have no mo marriage" [3.1.149])의 실천 무대

- 강사/김해룡(영문학박사, 전 한일장신대 인문학부 교수)

**18일(월) 오후 7:00** 우주관 오디세이(5)

두 문화와 과학혁명

- 강사/조송현(웹진 인저리타임 대표,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9일(화) 오후 7:00** 정해성의 문화공간(8)

우리시대의 예술가\_르네상스에서 근대까지 예술가의 삶

- 강사/정해성(문학박사, 문화평론가, 문화공간 Raum-Y 대표)

**25일(월) 오후 7:00** 근현대 중국을 읽는 키워드들(2)

신(新)과 구(舊)

- 강사/이보고(부경대 글로벌자유전공학부 교수)

**26일(화) 오후 7:00** 패션을 노래하다(1)

패션 트렌드를 이끈 영화 속 뮤지션들\_비틀즈와 프레디 머큐리

- 강사/진경옥(패션디자이너, 동명대 명예교수)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일 시** 11월 12일(화), 18일(월), 26일(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2만원(18일 강좌는 1만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2일(화), 26일(화)**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러시아 국민악파가 대세였던 19세기 초·중엽에 등장한 라흐마니노프는 대부분 아마추어였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프로였고 비르투오소였다.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에서는

2회에 걸쳐 러시아의 로맨티스트 라흐마니노프의 작품과 인생, 그가 살았던 격변의 시대를 찾아간다.

- 강사/곽근수(음악평론가)

**18일(월) 색이 삶을 말하다 제31강**

미술의 눈이 된 색채, 화가를 말하다

20세기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 편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전문가)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3:00 동래구 팽나무하우스 평생학습관, 수요일 오전 10:30 연제구 거제 평생학습관,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3개월 15만원(동래구 팽나무하우스 평생학습관, 연제구 거제평생학습관 수강은 무료)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에서 'FM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 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김옥균(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이 진행하는 클래식음악 입문자를 위한 영상음악감상회.

전시 | Display

고은사진미술관 해외교류전  
로만 베작\_시대의 고고학

**일 시** 8월 17일(토)-11월 2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핀란드 웨이브

**일 시** 7월 12일(금)-11월 26일(화)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2019 금빛사상미술협회 기획전  
그림을 만들고 조각을 그리다

**일 시** 10월 18일(금)-11월 7일(목) 523갤러리

**문의** 사무국장 김영희 010-8534-3966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희곡 창작 실기론**

김문홍 지음

연극과인간 / 350p / 1만 7천 원

부산연극계를 말할 때 ‘김문홍’을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극작, 비평으로 45년 동안 부산연극계에서 활동한 김문홍 전 부산극작가협회장이 <희곡 창작 실기론>을 펴냈다. 1998년부터 부산대 경성대 부산예술대 등에서 한 강의와, 2008년 시작한 ‘김문홍 희곡창작교실’에서 사용했던 강의 노트를 정리해 엮은 책이다. 김문홍 회장은 1976년 <한국문학>에 소설 ‘갯바람 쓰러지다’가 당선되며 소설가로 먼저 등단했다. 이후 동화, 희곡, 연극평론 등의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분야가 연극과 희곡이다. <안개주의보>(1987), <산천에 봄은 다시 오고>(1996), <세한도에 봄이 드니>(2006), <대숲에는 말(言)이 산다>(2009), <지상의 방 한 칸>(2014) 등 다수의 희곡집도 냈다. 이 희곡집에 수록된 30여 편의 희곡은 부산의 여러 극단에 의해 공연된 작품들이다. 45년 동안 부산의 연극현장을 지켜온 그는 이 책에 ‘실기론’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그만큼 실용적이다. 국내 창작희곡을 풍부하게 인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서 일반인이나 희곡 입문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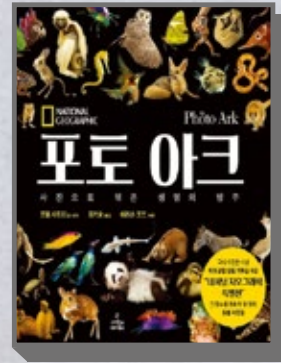


**토지 인물열전**

토지학회 지음

마로니에북스 / 408p / 1만 8천 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은 소설 제목이 아마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가 아닐까. <토지>가 처음 시작된 해는 1969년이니까 2019년 올해는 <토지>가 연재를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소설로 쓴 한국 근현대사’로 불리는 <토지>는 등장인물이 700여명에 이른다. ‘독자들이 기억하는 등장인물,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과연 이 책의 주인공은 따로 있을까?’ 등 작품 속 인물 이야기만 해도 끝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매년 가을에 강원도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열리는 ‘박경리문학포럼’의 ‘인물열전’ 발표 원고들을 재구성해서 새로 엮었다. ‘인물열전’은 ‘박경리문학포럼’ 현장에서 일반 독자들과의 친숙한 만남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순서였던 만큼, <토지>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누구나 이 책을 빠져들 것이다. 22명의 개성 있는 등장인물을 다양한 해설로 소개한다. 인물의 특징을 드러낸 인상적인 장면들을 다시 파헤치기도 하고, 해당 인물에게 고하는 글을 쓰거나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박경리 작가에게 편지를 쓰기도 한다. <토지> 외전을 읽는 것처럼 재미있다.



**포토 아크**

조엘 사토리 사진, 글 / 권기호 옮김

사이언스북스 / 400p / 3만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25년간 사진작가로 활동해 온 조엘 사토리가 2006년부터 진행해 온 ‘포토 아크’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엮은 사진집 <포토 아크>를 펴냈다. 성경 창세기에는 지구 대홍수를 앞두고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노아의 이야기가 있다. 노아는 지구의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아크)에 실어서 대홍수를 이겨낸다. <포토 아크>는 사진으로 만든 방주라는 의미이다. 지구의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100년 안에 지구 생물 가운데 절반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포토 아크> 프로젝트는 멸종에 맞서 살아 숨 쉬고 있는 1만 2000여 멸종 위기 종 모두를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해 수립됐다. 점차 사라져 가는 생물 다양성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는 한편, 그 생물들과 함께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책에는 400여 종의 동물 사진이 실렸다. 쿠바홍학, 자바코뿔새, 붉은가슴도요, 세인트빈센트 아마존앵무... 이름조차 낯선 멸종 위기 동물들의 존엄과 우아함을 보여주는 초상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생생하게 다가온다.

## ◆ 부산시립교향악단 2020년 연간 공연일정 공개

11월부터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통해 예매 가능



부산시립교향악단 2020년 연간 공연일정이 공개됐다.

내년 1월 16일과 17일 두차례 신년음악회로 2020년 일정을 시작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20년 각각 15차례 정기 연주회와 기획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을 통해 국내 교향악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완주하여 대한민국 교향악사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부산시립교향악은 2020년부터는 ‘슈트라

우스 어게인!’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슈트라우스의 주요 작품을 다시 한번 들려준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이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새롭게 선정한 작곡가는 ‘관현악법의 마술사’라 불리는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 라벨로, 2022년까지 라벨의 관현악곡 12곡을 모두 완주하는 ‘The Maurice Ravel Cycle’을 국내 최초로 도전한다. 이밖에 2020년 전 세계 클래식계의 가장 큰 화두인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그 어느때보다 많은 11곡의 베토벤 관현악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다양한 관객층을 위한 기획음악회도 준비하고 있다. 공연장을 찾기 힘든 영유아를 위한 ‘우리 아이 음악회’에서부터 청소년과 어르신, 은퇴자를 위한 무대,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나눔음악회 등 관객층을 배려한 다양한 무대로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은 잦은 예술감독 공석을 방지하고 예술단의 안정적 운영과 다음 시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내년 9월에 끝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인 최수열 지휘자의 임기를 2022년까지 2년 연장했다. 최수열 예술감독은 지난 2년여 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력 및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특히 시립예술단 최초로 1년 정기연주회 티켓을 일괄 오픈 및 판매 함으로써 객석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

## ◆ (재)부산문화회관·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업무협약(MOU) 체결

드림마(Dream馬) 어린이 합창단 창단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용관)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부산경남지역본부장 정형석)가 지난 9월 4일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창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부산문화회관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9월 19일 남구 용호동 새에덴지역아동센터에서 ‘드림마(Dream馬) 어린이 합창단’ 발대식을 갖고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후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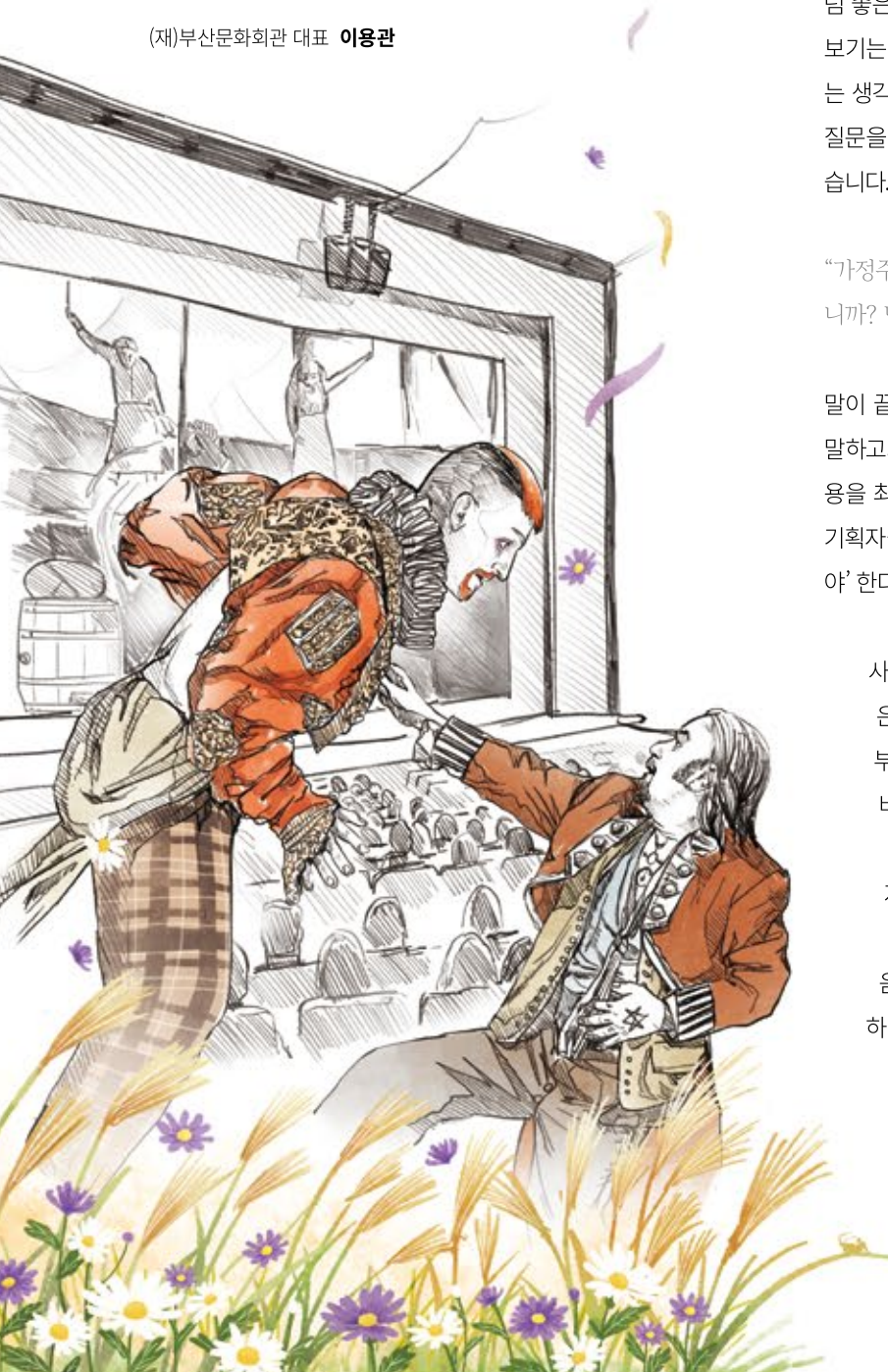


지역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 35명으로 구성된 ‘드림마(Dream馬) 어린이 합창단’은 부산시립합창단 전진 부지휘자가 총 예술감독을 맡아 발대식 후 매주 한차례 합창지도를 받아오고 있다. ‘드림마(Dream馬) 어린이 합창단’은 5개월간의 연습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축하무대를 통해 관객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 극장장의 손 편지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 NT Live의 존재 이유

제가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대전시의 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기획하거나 외부에서 사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얼른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좋은 공연을 고르거나 기획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연을 보기는 하지만 ‘좋은 공연’이라는 것은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다그치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쫓기듯 엉겁결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주부가 시장에 가서 어떤 기준으로 야채를 고르겠습니까? 당연히 싱싱하고 값싸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공연도 역시 신선한 것을 고르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아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선배 기획자들에게 자주 들었던 기준은 ‘새롭고, 재미있고, 유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공연기획자가 공연을 사오거나 기획을 하는 마음은 가족의 밥상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가는 가정주부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부가 온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이것저것 만져보고 물어보면서 싱싱하고 값싼 반찬거리를 고르듯이 시즌을 준비하는 공연기획자도 실제로 무대에 올리는 공연의 몇 배수를 직접 보기도 하면서 적절한 공연들을 골라냅니다. 주부의 마음속에 가족들의 취향이나 편식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듯이 공연기획자에게도 시민들의 취향이나 문화적 편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번 2019~2020 시즌에서도 이런 걱정이 반영된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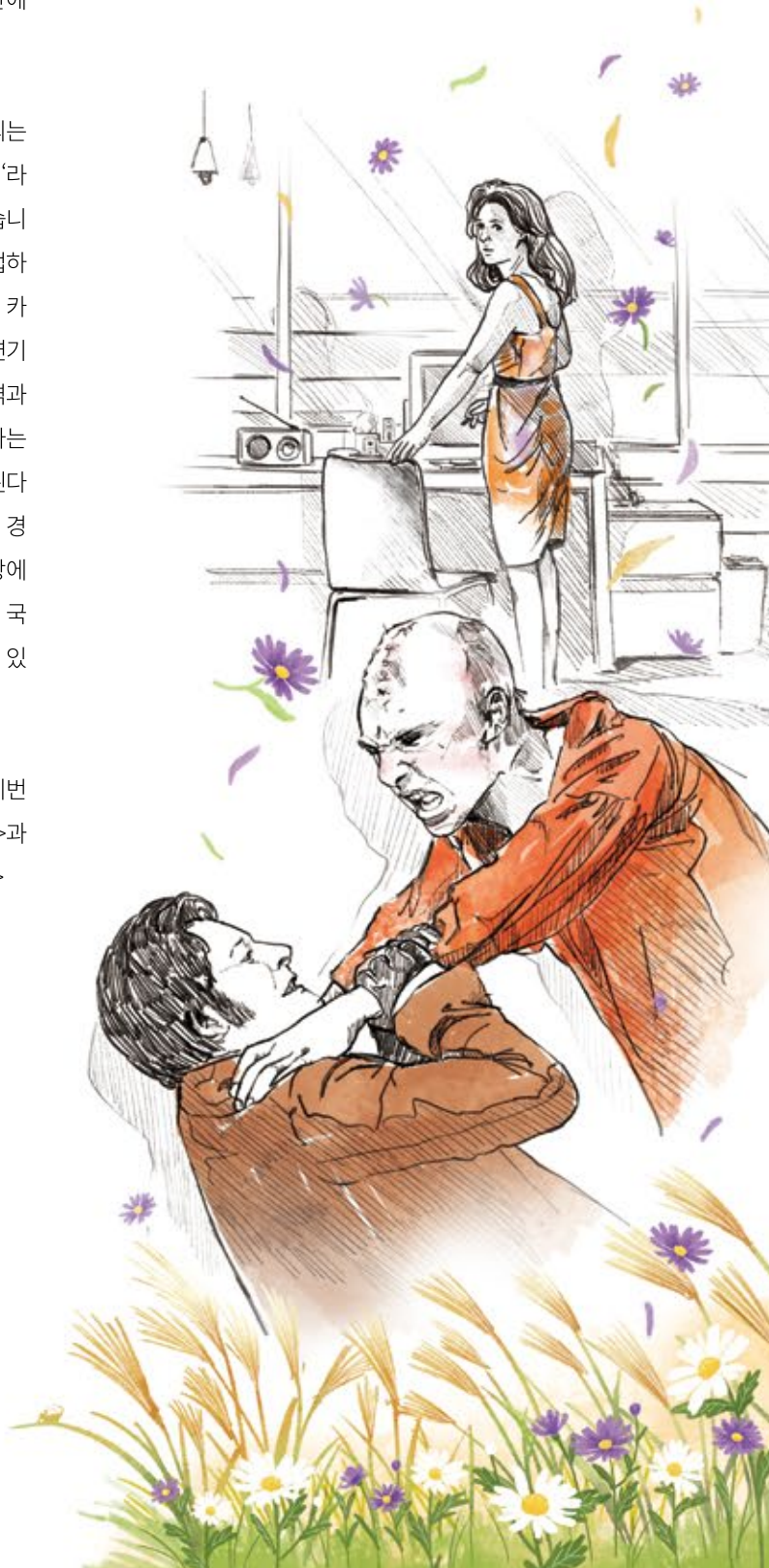
된 편식을 염려해서 연극과 무용을 균형 있게 준비했고, 더 좋은 공연을 값싸게 보여드리기 위해 시장도 넓혔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해외 시장에서 들어온 NT Live라는 것입니다. NT-Live는 영국의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이 영국 연극계의 화제작을 라이브로 촬영해 세계 여러 나라의 상영관에서 생중계, 혹은 녹화로 상영하는 공연이죠.

유사한 공연실황 상영 프로그램들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NT-Live의 성공 비결은 완성도 높은 작품과, 실제 공연의 '라이브성'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정교한 촬영과 편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출가와 배우들이 작업하며, 작품에 따라 촬영 연출자도 따로 섭외합니다. 5-8대의 카메라가 다양한 앵글과 샷으로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과 연기를 실제 공연보다 더 가까이 전달합니다. 저렴한 티켓 가격과 극장 어느 객석에서나 VIP석 같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입니다. 상영되는 지역의 언어로 자막이 제공되는 점도 국경을 넘어 관객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극 경험을 극대화시키죠. 때문에 NT-Live는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상영되는 문화계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2014년 국립극장에 의해 국내에 소개된 이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NT-Live를 시도하는 부산문화회관은 이번 시즌에 총 4편을 소개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10.6)>과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11.10)>, <헤다 가블러(2.15)>와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2.29)> 등입니다. 모두 연극사에 길이 남을 고전과 현대 명작들입니다. 만일 이런 작품들을 직접 보고 싶다면 런던에 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항공료와 티켓 비용만 기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공연을 부산에서 단 2만원에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시민 여러분의 반응이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주부가 정성껏 마련한 음식에 젓가락이 가지 않으면 속상하듯이 애써 준비한 이 공연들에 관심을 안보여주시니 저희들도 노심초사,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우리 기획자들

이 보다 새로운 기획에 도전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아직 세편은 공연이 남아 있으니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 10월 6일에 상영된 <프랑켄슈타인>을 보신 여러분들은 작품이 정말 생생하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 제1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공연 '피터팬' 공연

## 공연개요

- 공연명 : 부산시립극단 제1기 어린이뮤지컬아카데미 공연 '피터팬'
- 공연일시 : 2020년 2월 20일(목)~23일(일) / 평일 19:30, 주말 17:00
- 공연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주관 / 제작 : (재)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립예술단 / 부산시립극단

## 공모내용

- 모집대상 :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2학년
- 모집인원 : 20명
- 참가조건 : 연습일정 및 공연 참가에 성실히 참여 가능한 어린이
- 연습일정

	일정	요일	연습 내용
2019	12월 21일~12월 29일	토, 일	노래, 춤, 대본 리딩
2020	1월 6일~1월 31일	월~금	캐스팅, 노래, 춤, 연기
	2월 6일~2월 7일	월~금	노래, 춤, 연기
	2월 10일~2월 14일	월~금	장면 연습 및 디테일
	2월 17일~2월 19일	월~수	디테일 연습 및 리허설
	2월 20일~2월 23일	목~일	공연

※ 연습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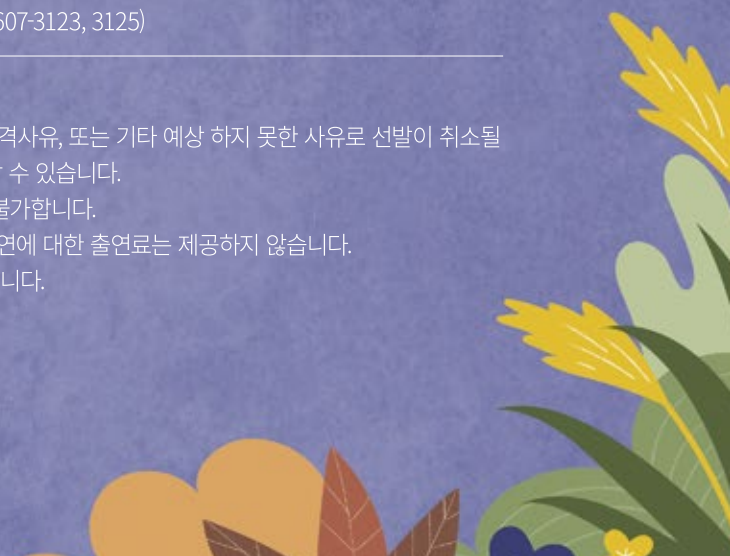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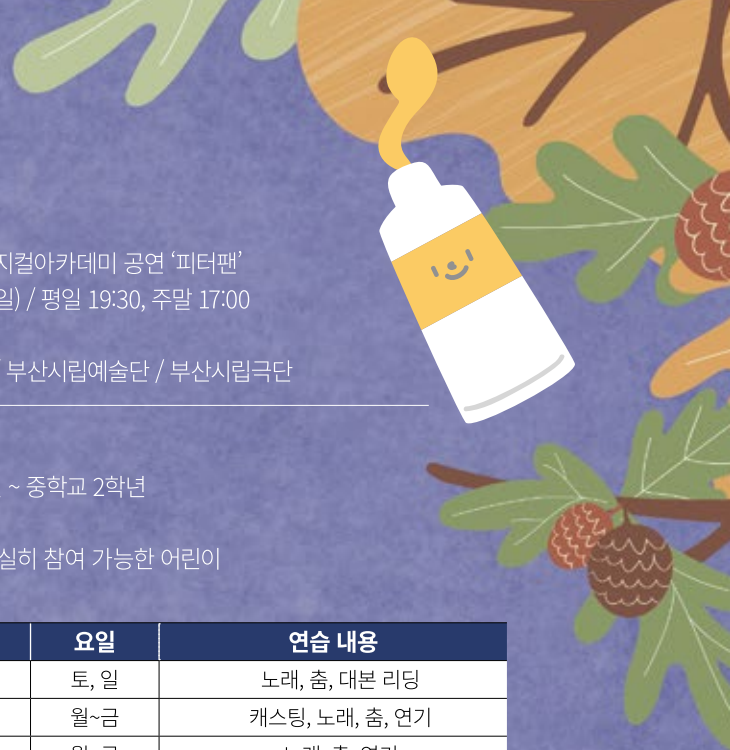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11일(월)~11월 22일(금) 17:00까지
- 오디션 : 2019년 12월 1일(일) ※ 상세일정 추후 공지
- 합격자발표 : 2019년 12월 5일(목)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재)부산문화회관(<http://www.bscc.or.kr>)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접수 및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19년 11월 11일(월)~11월 22일(금) 17:00 도착 분까지
- 제출자료
  - 신청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오디션 용 노래, 춤 음악(MR) 파일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재)부산문화회관(커뮤니티-새소식)
- 접수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부산시립극단 0308side@bscc.or.kr ※ E-mail 접수에 한함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메일 제목은 '어린이 배우 모집신청서\_본인이름'으로 작성
- 문의처 : 부산시립극단 담당자(☎ 051-607-3123, 3125)

## 유의 사항

- 최종합격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선발 결격사유, 또는 기타 예상 하지 못한 사유로 선발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할 수 있습니다.
- 연습기간 3회 이상 결석 시 배우 참여 불가합니다.
- 참가비 등 일체의 비용 요구 없으며, 공연에 대한 출연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수료증 발급됩니다.





# CI 디자인 공모

## 공모주제

- 부산시립예술단을 상징하는 CI 디자인
  - 부산시립예술단의 비전과 설립목적, 주요업무를 내포하고 이를 형상화한 심미적인 CI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을 상징할 수 있는 창의적인 CI
  - 부산시립예술단의 문화예술 활동 메시지를 이미지화 한 CI
- 기관명
  - 국 문 : 부산시립예술단
  - 영 문 : Busan City Arts Companies
  - 약 칭 : BCAC

## 지원자격

- 부산 거주자 및 직장을 둔 시민 누구나

## 시상내역

- 대 상 1명(1팀) : 100만원 / 우수상 1명(1팀) : 50만원 / 장려상 1명(1팀) : 30만원
- ※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 공모일정

- 공고기간 : 2019년 10월 8일(화)~11월 8일(금)까지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1일(금)~11월 8일(금) 17:00까지
- 선정발표 : 2019년 11월 22일(금)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http://www.bscc.or.kr))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공모요강(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커뮤니티-새소식)  
[www.bscc.or.kr/05\\_community/?mcode=0405010000](http://www.bscc.or.kr/05_community/?mcode=0405010000)

## 접수 및 제출 방법

- 참가신청서(작품설명서), 저작권양도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뒷면 하단에 제출자명, 전화번호 기입)
- 출품수 및 작품규격
  - 출품수 : 개인 또는 팀별 2점 이내     - 사이즈 : B5 이내
  - 파 일 : AI, PSD파일(CYMK 300dpi), JPEG 파일 필수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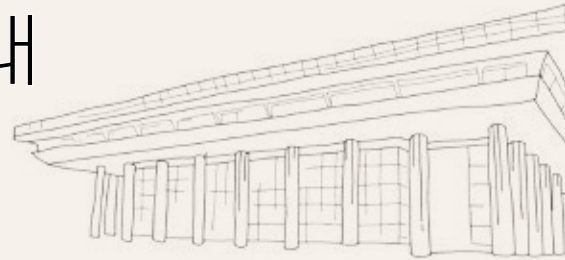
## 접수방법(E-mail 접수에 한함)

- 제출기간: 2019년 11월 1일(금)~11월 8일(금) 17:00 도착분까지
- 접수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행정지원팀 [busan3101@bscc.or.kr](mailto:busan3101@bscc.or.kr)
  -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파일상의 훼손된 작품은 책임지지 않으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http://www.bscc.or.kr))에서 확인바랍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 행정지원팀 CI공모 담당자 ☎ 051-607-3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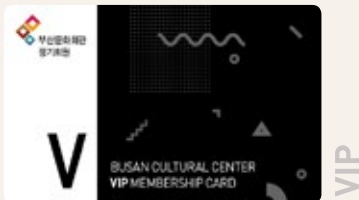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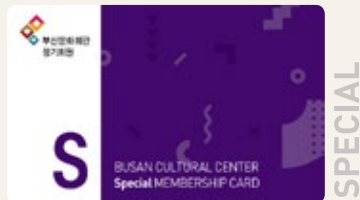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중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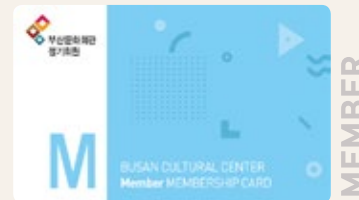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 입장료의 할인이 달라질 수 있음.

회원인 1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4~6 FAX. 051)607-607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제외)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2019 마티네 콘서트** 11월 20일(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희당 선착순 40매)  
 \* VIP회원 사용 가능한 초대권으로 전화 예약(사전 예약)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 \*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 \*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 \*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케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중 조기중치과의원 원장

## \*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학교 총장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옥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철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워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엘가 대표  
 이성임 르네상스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장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이진영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임은자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영희 속편한내과 원장  
 정의화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성락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종래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조충영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진경옥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하정태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한원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허 준 현임숙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예술성과 리더십이 뛰어난  
3인의 수석지휘자 후보 중 한분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세번째 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5회 정기연주회  
**Embrace the World**  
세계를 품다

루마니아 여장  
**Adrian Stanache!**

2019.11.19 (화) /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Zigeunerleben (유랑의 무곡) op.29 La celta (시랑) Dorol (Romanian folk choral music) 아리랑 (Korean folk choral music) Pavane Molodets Chorus (Opera La Traviata 중)	Alma redemptoris mater Matona mia cara O salutaris hostia In stiller nacht Locus iste Salve Regina	Requiem Op.48
--	---	---------------

연주: 아드리안 스타나체

주최: 부산문화재단 주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관람료: 공연 10,000원 예매: www.bpo.or.kr 문의: 607-3116(사무총장실), 607-6074(고객지원실)  
할인: 50% (국가유공자, 동북지방청, 장애인, 장애인가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국 사이클 X  
The Richard Strauss Cycle X - Complete Tone Poems 2017-2019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6회 정기연주회

**아홉, 열, 열하나**  
The Last Cycle

2019. 11. 22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생상스 · 교향곡 제3번 「오르간」 중 피날레  
C. Saint-Saëns · Symphony No.3 in C minor, "Organ", Op.78, Finale

힐보리 · 열한 개의 문  
A. Hillborg · Eleven Gates

슈트라우스 ·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R. Strauss · "Also sprach Zarathustra", Op.30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eo-Yeoul Choi, Conductor  
오르간: 신동일 Dong-il Shin, Organ

주최: 부산문화재단  
공연: 20,000원 | 5시 15,000원 | 8시 10,000원 | 9시 5,000원 | 예매: www.bpo.or.kr 문의: 607-3116(사무총장실), 607-6074(고객지원실)  
할인: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가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연: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가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방  
BPO CHAMBER MUSIC

2019. 11. 29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플랑크 · 피아노와 목관5중주를 위한 6중주  
F. Poulenc · Sextet for Piano & Woodwind Quintet

루린 · 트럼펫, 트롬본과 피아노를 위한 판타지  
J. Turjan · Fantango for Trumpet, Trombone and Piano

라이히 · 나무조각을 위한 음악  
S. Reich · Music for Pieces of Wood

그린 · 실로포니아  
G. H. Green · Xylophonia

코신스키 · 하나 같이  
G. Kosinski · As One

스키드모어 · 리추얼 뮤직  
D. Skidmore · Ritual Music

세론 · 네 발을 위한 4/4  
A. J. Cronin · 4/4 for Four

도트리 · 피플  
N. Daughtrey · Sizzle

피아노 & 목관5중주 | 이은진, 조성복, 윤재현, 김재현, 김현우, 최민지  
트럼펫 & 트롬본 & 피아노 | 조희태, 장신화, 이은정  
타악 앙상블 | 나종호, 박용진, 김재현, 박찬식, 배지훈

주최: 부산문화재단  
공연: 전체 10,000원 | 예매: www.bpo.or.kr  
문의: 607-3116(사무총장실), 607-6074(고객지원실)  
할인: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가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산시향의  
**심야**  
음악회  
BPO Night Lab

2019. 12. 4 WED 9:00 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Medium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필립 글래스 · 글래스웍스 중 편곡  
Philip Glass · Glassworks, Fagades

존 애덤스 · 롤라팔루자  
John Adams · Lollapalooza

테러 라일리 · 인 C  
Terry Riley · In C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eo-Yeoul Choi, Conductor  
이민형 Min Hyang Lee

주최: 부산문화재단  
공연: 전체 10,000원 | 예매: www.bpo.or.kr 문의: 607-3116(사무총장실), 607-6074(고객지원실)  
할인: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가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연: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가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제558회

Beethoven 250  
**New Year's Concert 2020**  
**신년음악회**

1월 16일 THU 19:30 대극장 Main Theater

베토벤 | 삼중 협주곡  
L. v. Beethoven | Triple Concerto  
말러 | 교향곡 제4번  
G. Mahler | Symphony No.4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바이올린 김이정 E-jung Kim, Violin  
첼로 양욱진 Ukjin Yang, Cello  
피아노 이미연 Miyeon Lee, Piano  
소프라노 서선영 Sunyoung Seo, Soprano

베르디 | "운명의 힘" 서곡  
G. Verdi | Overture to "La forza del destino"  
베르디 | "운명의 힘" 중 "평화, 평화를, 신이여"  
G. Verdi | "Pace, pace, mio Dio" from "La forza del destino"  
푸치니 | "라 보엠" 중 "내 이름은 미미"  
G. Puccini | "Si, mi chiamo Mimì" from "La bohème"  
푸치니 | "나비 부인" 중 "어느 낱말"  
G. Puccini | "Un bel dì, vedremo" from "Madama Butterfly"  
말러 | 교향곡 제4번  
G. Mahler | Symphony No.4

1월 17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소프라노 서선영 Sunyoung Seo, Soprano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4번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오랜 만에 부산시향이 연주하는 말러이기도 하고 말러가 직접 봤 듯이, 교향곡 4번의 무게중심은 마지막 악장인 '천국의 삶'에 실려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분은 2019년 송년음악회에서 활약했던 소프라노 서선영이 노래하며, 두 번째 날에는 그녀가 들려주는 베르디와 푸치니의 아리아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주에서는 아리아 대신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을 연주하여 베토벤 탄생 250년을 기념합니다.



제561회

**Baroque to Classical**  
**바로크에서 고전까지**

3월 27일 FRI 19:30 중극장 Medium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비발디 | 신포니아  
A. Vivaldi | Sinfonia, RV112  
바흐 |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3번  
J. S. Bach | Brandenburg Concerto No.3  
모차르트 | 교향곡 제41번 "주피터"  
W.A. Mozart | Symphony No.41 "Jupiter"

부산시향은 바로크와 고전시대의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선보일 계획입니다. 아늑한 중극장에서 비발디, 바흐, 모차르트의 명곡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소박한 규모로 변신한 부산시향의 색다른 모습을 기대하세요!

**The Maurice Ravel Cycle I - Complete Orchestral Works 2020-2022**



제562회

**Cheers!**  
**짠!**

4월 17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작곡 김택수 Texu Kim, Composer  
클라리넷 김한 Han Kim, Clarinet

하콜라 | 클라리넷 협주곡  
K. Hakola | Clarinet Concerto  
김택수 | 짠! (부산시향 위촉 세계초연)  
Texu Kim | Zzan!! World Premier Commissioned by BPO  
라벨 |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  
M. Ravel | "Daphnis et Chloé" Suite No.2

핀란드방송교향악단에서 클라리넷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한은 끼와 재능이 넘치는 연주자입니다. 2019년에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독일ARD 국제콩쿠르에서 당당히 2위와 청중상을 거머쥐기도 했죠. 이 매력넘어 핀란드의 현대작곡가 카오 하콜라가 쓴 흥겨운 클라리넷 협주곡을 어려움에 선사합니다. 후반부는 부산을 테마로 작곡된 작곡가 김택수의 짠!이 초연되고, 모리스 라벨의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명작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2번으로 연주회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제559회

Beethoven 250  
**French Nuance**  
**프랑스식 뉘앙스**

2월 14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객원지휘 아드리앵 페뤼송  
Adrien Perruchon, Conductor

베토벤 | "피델리오" 서곡  
L. v. Beethoven | Overture to "Fidelio"  
드뷔시 |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국내초연)  
C. Debussy | Pelléas et Mélisande Suite (Korean Premier)  
드뷔시 | 목신의 오후 전주곡  
C. Debussy |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드뷔시 | 바다  
C. Debussy | La mer

서울시향과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의 필파나 수석주자로 일하고 있던 한 청년은 2014년 어느 날 대체지휘자로서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을 지휘하게 됩니다. 2016년에도 역시 건강에 이상이 생긴 지휘자 대신 심포니를 지휘하고 LA필하모닉에도 지휘자로 데뷔합니다. 아드리앵 페뤼송,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진 필파니스트인 동시에 최근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이 음악가가 드뷔시의 작품들을 가지고 부산에 옵니다. 이 연주회는 프랑스 대학명시대를 배경으로 작곡된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서곡으로 문을 엽니다.



제563회

Beethoven 250  
**(un)clear**  
**모호함과 확고함**

5월 15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비올라 윤진원 Jin-Won Yoon, Viola

리게티 | 아트모스페르  
G. Ligeti | Atmosphères  
호프마이스터 | 비올라 협주곡  
F. A. Hoffmeister | Viola Concerto  
베토벤 | 교향곡 제5번  
L. v. Beethoven | Symphony No.5

시작도 끝도 없는 음악. 리게티의 말처럼 어쩌면 이 작품은 가장 모호한 성격의 오케스트라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트모스페르'는 현대음악사에 매우 중요한 작품이며, 여러분은 이 음악에서 멈춰있는 것 같으면서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음향의 큰 덩어리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심하게 이 음악에 몸을 맡기신다면, 매우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베토벤은 교향곡 5번에서 단순한 음악적 언어를 구사합니다. 운명교향곡이 가장 베토벤다운, 강인하고 직설적이며 명확한 어법을 가진 명작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작품 사이에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고전주의 비올라 협주곡을 준비했습니다.



제560회

**Bohemian Groove**  
**보헤미안**

3월 6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이민형 Min Hyung Lee, Conductor  
피아노 홍민수 Minsoo Hong, Piano

스메타나 | "나의 조국" 중 "몰다우"  
B. Smetana | "Vltava" from "Má vlast"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F. Liszt | Piano Concerto No.1  
드보르작 | 교향곡 제8번  
A. Dvořák | Symphony No.8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으로 부산 관객과 처음 만났던 이민형 부지휘자는 이번에도 드보르작을 선택했습니다. 교향곡 8번과 스메타나의 작품으로 여러분께 보헤미아의 감성을 전합니다. 2017년 프란츠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한 홍민수는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당시 입상곡인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부산시향 정기연주회 무대에 데뷔합니다.



제564회

Beethoven 250  
**BPO meets Kun-Woo Paik**  
**거장의 레제로**

6월 19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피아노 백건우 Kun-Woo Paik, Piano

베토벤 |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L. v. Beethoven | Overture to "Die Geschöpfe des Prometheus"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2  
마르케스 | 단송 제2번  
A. Márquez | Danzón No.2  
베토벤 | 교향곡 제1번  
L. v. Beethoven | Symphony No.1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7년 만에 다시 부산시향과 함께 합니다. 거장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가장 거침없고 위트 있는 2번을 선택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최수열 예술감독도 이에 맞추어 청년 베토벤의 기발하고 신랄한 아이디어로 가득찬 첫 번째 교향곡을 선곡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그리 자주 연주되는 편은 아니어서 연주회의 희소성이 큼니다. 일 반적인 베토벤의 호상회에서 느껴지는 악성의 무겁고 진중한 모습과는 조금 다른, 밝고 유쾌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베토벤과 함께 역시 작곡가 마르케스의 흥곡을 같은 무대에서 들는 것도 꽤 재미난 경험이 되리라 믿습니다.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ymphonic Season 2020



## Beethoven 250 O Sole Mio 이탈리아 음악휴가

7월 21일 TUE 19:30 대극장 Main Theater  
객원지휘 홍석원 Seokwon Hong, Conductor

멘델스존 |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  
F. Mendelssohn | Symphony No.4 "Italian"  
베토벤 | 코리올란 서곡  
L. v. Beethoven | Coriolan Overture  
레스피기 | 로마의 소나무  
O. Respighi | Pini di Roma

휴가철이군요! 이탈리아로 클래식 음악여행을 떠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산시향이 마련합니다. 밝은 에너지로 가득찬 멘델스존의 '이탈리아 교향곡'과 고대 로마 전설의 영웅 코리올라누스 장군을 모티브로 한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 그리고 이탈리아 작곡가 레스피기의 작품을 만나 보시죠.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티롤주립극장의 카펠마이스터로 일하고 있는 홍석원 지휘자가 부산시향과 처음 인연을 맺습니다.



## Beethoven 250 Frame 틀

11월 10일 TUE 19:30 중극장 Medium Theater

지휘 이민형 Min Hyung Lee, Conductor  
바이올린 정기연주회 협연 오디션 합격자  
Winner of BPO's Audition, Violin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W. A. Mozart | Violin Concerto No.5  
베토벤 | 교향곡 제4번  
L. v. Beethoven | Symphony No.4

틀을 부수다. 틀에 빠하다...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틀'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다루는 방식에 따라 획기적이 될 수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요. 베토벤은 형식적으로 획기적 이다 못해 파괴적이었던 자신의 영웅교향곡을 뒤로하고 '고전적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또 다른 개성을 드러내는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모차르트는 궁정악사라는 틀을 부수고 나오면서 가장 형식에 충실한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을 남겼지요. 공개오디션을 거쳐 부산시향의 전 단원들에게 검증된 바이올리니스트 '누군가'와 부산시향의 부지휘자가 가장 형식적인 하지만 독보적인 두 작품을 소개합니다.



## Beethoven 250 Again, R. Strauss! I 부산시향의 슈트라우스 어게인! I

9월 23일 WED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바이올린 클라라 주미 강 Clara-Jumi Kang, Violin

베토벤 | 바이올린 협주곡  
L. v. Beethoven | Violin Concerto  
아이브스 | 대답없는 질문  
C. Ives | The Unanswered Question  
슈트라우스 | 죽음과 정화  
R. Strauss | Tod und Verklärung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완주한 후, 다시 만나는 첫 번째 슈트라우스입니다. 더욱 다듬어진 부산시향의 슈트라우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죽음과 정화' 전에는 '대답없는 질문'이 연주됩니다. 미국 현대음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인 찰스 아이브스의 대표작입니다. 작곡가는 이 곡에 대해 '존재에 대한 해묵은 질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반부에 들려드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의외로 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기피하는 곡입니다. 독주자들이 행만한 내용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 작품의 좋은 해석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클라라 주미 강이 해석한 베토벤은 믿어서도 좋습니다!



## Shostakovich's 7th Symphony 부산시향의 쇼스타코비치

11월 24일 TUE 19:30 대극장 Main Theater

객원지휘 최희준 Hee-Chuhn Choi, Conductor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7번 "레닌그라드"  
D. Shostakovich | Symphony No.7 "Leningrad"

부산시향이 2019년에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을 연주했듯이, 2020년에도 긴 연주 시간을 가진 교향곡 단 한 곡만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열다섯 개의 교향곡 중 중요한 대작인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가 무대에 올랐고, 이 곡을 수 차례 연주한 바 있는 수원시향 예술감독 최희준의 지휘행에 맡깁니다.

## The Maurice Ravel Cycle II - Complete Orchestral Works 2020-2022



## Beethoven 250 Unique 개성

10월 23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피아노 최희연 HieYon Choi, Piano

라벨 |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M. Ravel | Alborada del Gracioso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4번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4  
라벨 |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M. Ravel |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  
브람스 | 교향곡 제2번  
J. Brahms | Symphony No.2

브람스만의 매력에 있습니다. 가을은 특하나 브람스를 듣기 좋은 계절이죠. 프랑스의 천원교향곡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교향곡과 함께 낭만적인 시간을 만끽하세요. 이와 어울릴 베토벤의 독창적인 보물같은 피아노 협주곡 4번은 서울대 최희연 교수가 합연합니다. 금호아트홀이 기획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완주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이자 학구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따뜻하고 서정적인 두 곡 사이에는 대조를 이루어 다음 곡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킬 라벨의 인상적인 관현악 두 작품이 배치됩니다.



## Beethoven 250 Beethoven's 250th Birthday in Busan 송년음악회 해피벌스데이 루트비히!

제570회

스트라빈스키 | 인사 전주곡  
I. Stravinsky | Greeting Prelude  
하이든 | 트럼펫 협주곡  
F. J. Haydn | Trumpet Concerto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합창"  
L. v. Beethoven | Symphony No.9 "Choral"

12월 17일 THU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Dmitry Lokalenkov, Trumpet  
소프라노 박은주 Eun Joo Park, Soprano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Jungmi Kim, Mezzo Soprano  
테너 하석배 Seokbe Ha, Tenor  
베이스 함석현 SeokHeon Hamm, Bass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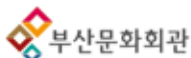
스트라빈스키 | 인사 전주곡  
I. Stravinsky | Greeting Prelude  
모차르트 | 오보에 협주곡  
W. A. Mozart | Oboe Concerto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합창"  
L. v. Beethoven | Symphony No.9 "Choral"

12월 18일 FRI 19:30 대극장 Main Theater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오보에 조정현 Jung-Hyun Cho, Oboe  
소프라노 박은주 Eun Joo Park, Soprano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Jungmi Kim, Mezzo Soprano  
테너 하석배 Seokbe Ha, Tenor  
베이스 함석현 SeokHeon Hamm, Bass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1770년 12월 17일, 서양음악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악성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태어났습니다. 정확히 250년 후 같은 날, 부산시향이 그의 생일을 성대하게 축하하려 합니다. 합창교향곡과 함께, 베토벤에게 영향을 준 두 번째 작곡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협주곡이 프로그램에 kerül됩니다. 해피벌스데이, 루트비히!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usan Cultural Center

문의 051-607-3111-3(부산시향), 6074-5(정기회원)  
예매 www.bscc.or.kr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제570회 (송년음악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할인 50%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임산부  
20% 정기회원, 학생(24세이하), 외국인



(재)부산문화회관



# 플러스 무료 회원

# 2차 가입 캠페인

혜택을 늘리다<sup>+</sup> 감동을 더하다<sup>+</sup>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높은 문화도시 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회원인 플러스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도 받으세요.

##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 가입기간

2019년 9월 1일(일) ~ 12월 31일(화)

## 참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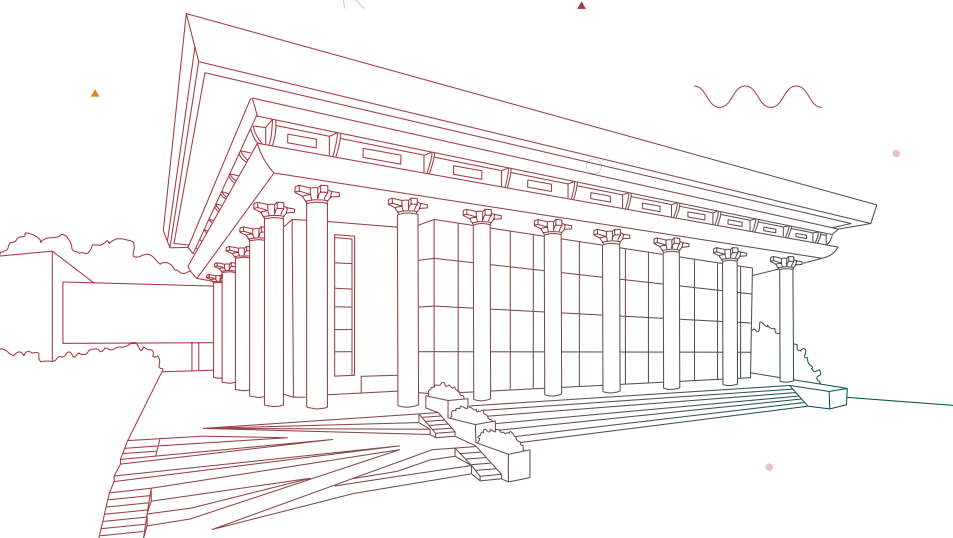
가입 신청서 작성 또는 홈페이지([www.bscc.or.kr](http://www.bscc.or.kr))에서 가입

## 경품내용

선물1	10명	2020 부산문화회관 상반기 공연 초대권(1인2매)
선물2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 (10만원 상당)
선물3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 (5만원 상당)
선물4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 (3만원 상당)
선물5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에의 초대> 1년 구독권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텀블러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 당첨자 발표

2020년 1월 중, 홈페이지 발표



박 달 리

**꼬등어**  
GGO DEUNG O

GGOOD DESIGN  
산업자원부 선정

iF  
Award



Facebook



Instagram



Twitter

NEW PRODUCT

# 꼬등어 문구 3종 신제품 출시

[www.designivy.com] 에서 꼬등어 신제품을 만나보세요!

01



꼬등어  
점착메모지

2,000W

02



꼬등어  
젤펜

3,000W

03



꼬등어  
마스킹테이프

2,500W

꼬등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꼬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www.designivy.com](http://www.designivy.com) [www.designbusan.kr](http://www.designbusan.kr)  
디자인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90, 101호 [T]051)636.1216 [E]info@designbusan.kr

KBRAIN POWER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우수디자인전문회사 Best Design Company in Korea

KOREA DESIGN AWARD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reddot award design concept

iF DESIGN AWARD

K-ESP 기술전문기업

인재육성중소기업

지휘자 장한나가 이끄는 해외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특별한 무대에 화려함을 더할 피아니스트 임동혁



장한나 &

Han-Na Chang  
Dong Hyeok Lim  
Trondheim Symphony Orchestra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피아니스트 임동혁



그리그 페르귤트 모음곡 1번 |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A단조 | 협연 임동혁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8단조 '비창'

2019.11.14<sup>THU</sup> 7:30<sup>PM</sup>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타겟

VIP석 12만원 | R석 9만원 | S석 6만원 | A석 3만원

예매



051-607-6000

인티파크 티켓 1544-1555